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 7 시민환경대학
- 8 시민정원사

동문소식

- 9 동창회
- 10 동문동정
- 11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5기 모집 안내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1.1 도시환경국제개발워크숍 -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7 도시환경 국제개발워크숍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답사에는 최막중 교수, 김태형 교수와 함께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11명, 환경관리 전공 1명, 환경조경학과 6명 등 총 18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협동과정 조경학과 오랑돌군 학생의 협조로 원활한 답사가 이루어졌다.

울란바토르시의 게르 지역과 재개발 아파트 지역을 견학하였다. 몽골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인 유목, 목축에 대해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특히 유목민의 전통 가옥 '게르'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며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몽골국립대학교 학생들과 울란바토르가

직면한 도시 문제의 현장을 함께 살피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10월 3일에는 몽골국립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몽골국립대학교 도시환경국제개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 몽골의 조경, 사막화, 주택정책,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개발, 경제개발 등 여섯 가지를 주제로 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몽골국립대학교 교수진 역시 울란바토르 시의 도시 문제, 도시 외곽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도시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환경대학원과 몽골국립대학의 추후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수강생들의 연구 결과물은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1.2 도시지역세미나 : 창신동·이화동

환경계획학과 김정민 교수의 도시지역세미나 수업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23일 창신동과 이화동 일대를 답사하였다. 창신동과 연결된 동대문 패션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특강을 듣고, 창신동 철거재개발 논의에서 도시재생 논의로의 전환에 대한 배경을 현장 답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화동 답사를 통해 주거지와 상업 시설 혼재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강생들은 팀을 나누어 목적지를 창신동의 '창신아지트'로 정하고, 낙산공원·신당동·광화문·신설동 등에서 각각 출발하여 주변 지역을 답사하였고, 동대문 패션시장 산업과 주변 지역이 어떻게 연계되어 도시공간 속에 나타나는가를 서로 공유하였다.

어반하이브리드에서 운영 중인 창신아지트에 방문하여 동대문 패션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각각의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동대문 패션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특강을 들으며 동대문 시장의 배후지역으로써 창신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였다. 또한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이 동대문 패션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해 공유하였다.

수강생들은 지역 산업(패션산업 전반)과 역사성,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이해당사자 분석 수행 후,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발전략(공공·민간개발)을 기말과제로 제시하게 된다.



1.3 도시사회론 - 관악산 및 샬로수길

전상인 교수의 도시사회론 수업에서는 11월 2일 관악산과 관악구 샬로수길 일대를 탐방했다. 서울 관악산 답사를 통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물리적 공간구조와 전통적 도시계획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또한 지역생태계 학습의 일환으로 서울대 인근에 새롭게 두각을 보이는 샬로수길을 찾았다. 샬로수길은 관

악로14길에 위치한 재래시장이었던 곳으로, 4-5년 전쯤부터 개성 있는 맛집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예비계획가로서 최근 도시에서 지역단위로 일어나는 지역생태계의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을 진단해보았다.



1.4 교통학 전공 : 강원도 철원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구간

환경계획학과 김성수 교수와 장수은 교수의 대중교통관리, 계획 모형연구, 교통공학실습, 교통공학연구, 교통계획 등 교통학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동안 강원도 철원군 접경지역을 답사하였다.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철도 복원 현장을 현장답사하고 토론을 통해 철도복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탄강 주변의 화산지형 생태를 답사하여 약 1억 년 전에 형성된 화산암 지대를 관찰하였다.

교통학 전공 답사팀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사업구간과 추진현황 등 사업의 개요를 브리핑 받은 후 사업구간 현장을 답사하였다. 경원선은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역(5.6km, 민통선 앞) 구간 복원 후 추진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백마고지역을 지나 민통선을 통과한 후, (구)월정리역을 답사하고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이 한 눈에 보이는 평화전망대에 올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원선 복원 구간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경원선 노선은 공예도성 유적지를 지나기 때문에 유적 보호를 위해 새로운 노선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탄강의 고석정을 비롯한 암벽들은 약 1억 년 전에 형성된 화강암 지대이며 사자바위, 거북바위 등 다양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었다. 고석정 누각 인근에서 한탄강을 따라 화산지형을 관측할 수 있는 통통배를 탑승하여 강원도 기념물 제8호이자 철원8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고석정을 답사하였다.



1.5 토양환경학, 생지화학 : 전남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환경계획학과 오능환 교수의 토양환경학과 생지화학 수업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 동안 전남 광양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을 답사하였다. 토양환경학 및 생지화학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 지식들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목 및 점검 과정을 거치고, 토양과 관련된 여러 항목들을 직접 추정하고 실험실 분석을 위해 토양과 물을 채취해 왔다.

토양은 풍화작용의 산물로 유기물과 광물이 뒤섞인 혼합체를 이룬다. 즉,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면 해당 지역의 풍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풍화 정도에 따른 수질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능 또는 방출능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양을 유기물 층에서부터 깊이 50cm까지 나누어 각 층마다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실험실에서 건조시킨 뒤 수업 시간에 실습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계류수 중 이산화탄소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축적된 기원으로 보이는 삼나무 숲 토양에 토양기체분석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라이시미터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토양수를 채취하였고, 토양-계류수-하천으로 이어지는 연속체에서의 이산화탄소 거동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에 관한 강의와 함께 토양에 관한 강의도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었다.



1.6 기후변화정책 :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의 기후변화정책 수업에서는 환경관리 전공 학생들의 자연생태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 11월 4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관악수목원 답사를 실시하였다.

관악수목원은 1,1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현재 일반에 개방은 하지 않고 연구 목적의 방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현장답사를 통해 서울대에서 관악수목원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물 부족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1.7 도시설계리빙랩 :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현장 워크숍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 전공 이석정 교수가 담당하는 리빙랩 수업은 도시설계 스튜디오로서, 도시의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이 설계는 환경대학원과 고양시정연구원이 함께 하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1학기 환경대학원 기초수업이었던 “환경 계획 설계” 수업 내용을 심화시켜 실질적인 도시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계 대상지는 ‘통일 고양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대상지인 한강 장항습지, 호수공원, 대화천 인접지역으로 현재 고양시에서 K-culture valley, 방송영상 미디어 벨리, LH청년 스마트타운, 일산 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부지 등의 토지이용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도시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하천 및 녹지 계획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한강 및 하천 수면 높이를 고려한 제1자유로 뚝방 관리와 장항습지 연계 및 접근성 확보 등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9월 이석정 교수 및 환경조경학과 학생 5명, 건설환경공학부 학생 1명 등 총 6명의 학생과 김준우, 양승호 고양시정연구원이 함께 고양시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는 등 고양시에서 4일 간의 워크숍을 가졌다. 이어서 일주일 간 일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사와라, 구라시키 지역의 다양한 수변공간에 방문하여 하천관리 및 수변 공간 디자인에 대해 논의했으며 도쿄도청, 오사카 하천관리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12월 중순 고양시청에서 최종 평가를 가졌고, 수업 관련 판넬들은 고양시청에 전시 될 예정이다.



대상지맵



도쿄도청회의



나카노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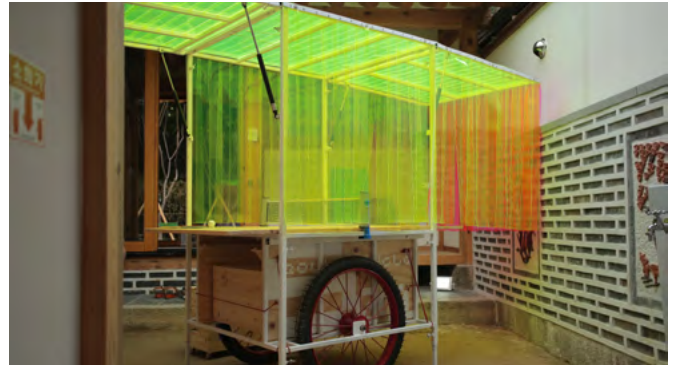
구라시키

1.8 도시공간연구스튜디오 : 도시건축비엔날레 및 마포 석유문화비축기지

도시공간연구스튜디오(Urban Space Research Studio)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찾고, 도시 영역을 탐구하여 잠재적으로 어바니즘(Urbanism)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생태계 고유의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태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며, 생태계 고유의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분열 및 정치적 갈등을 사회 구성요소로 나타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도시공간연구스튜디오는 도시의 형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구조에서, 지속 가능하고 조정 가능하며 개방된 도시 생활이 가능한 전략으로서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들을 전시하고 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방문하였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공유도시’를 주제로 도시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전시는 ‘주제전’ 과 베이징, 런던, 빈 등 50여 개 도시의 공공프로젝트를 보여주는 ‘도시전’, ‘현장프로젝트’,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아홉 가지 공유’라는 주제전을 전시하였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한국식 소형 주거와 상업, 골목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구조의 공간으로, 서예레 교수 연구실(Urban Terrains Lab)에서 참여한 ‘Seoul Recycle’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도시건축비엔날레 답사를 마치고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하였다. 문화비축기지는 폐산업시설인 마포석유비축기지를 재생하여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간이다. 기존의 5개의 탱크를 활용하여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 파빌리온으로 재생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



서예레 교수 연구실 참여작 'Seoul Recycle'



문화비축기지 다목적 파빌리온



문화비축기지 (舊석유비축기지)

1.9 환경 생태계획 : 평강식물원

환경대학원의 송영근 교수가 담당하는 환경 생태계획 수업에서는 환경 생태계획의 다양한 지향점 중 하나인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 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본 수업에서는 생명 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30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평강식물원을 답사하였다.

이 날 답사는 전문해설사의 안내와 해설로 진행되어 식물원 조성 이념 및 멸종 위기 식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평강식물원은 단순히 식물을 수집하고 재배할 뿐 아니라, 식물원의 주인은 식물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최대한 인공미를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깝게 조성되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암석원 및 고산식물을 보유하기 위해 지금의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강식물원은 개원 이래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식물을 꾸준히 수집·증식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답사 후에는 생물 다양성 증진의 측면에서 식물원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녹지지역을 생물다양성을 위한 양질의 공간으로 재자연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1.10 정원예술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및 광주 폴리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담당하는 정원예술론 수업은 서구 정원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현재의 실천행위와 관련된 정원테마를 다룬다. 현대의 정원에서 드러나는 폴리(폴리)와 정원건축물의 실제적인 형태를 보기위해 2017년 11월 21에서 22일까지 1박 2일로 광주를 중심으로 답사를 실시하였다.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 ACC)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문화창조원에서 개최한 전시 중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유라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도시의 상호연계성을 ‘도시, 네트워크, 영토’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타내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내 다양한 민족, 문화, 국가가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왔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ACC의 내·외부를 넘나들며 건축물 곳곳을 둘러보았다. 지상과 지하의 자연스러운 연결에 공공조경공간을 형성하였고, 그 주변 역사적 건축물은 내부와 외부사이의 매개물이 되어 공간 구성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광주 일대에 위치한 광주 폴리(Gwangju Folly)를 관람하였다. 광주 폴리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공공 공간 속에서 상징적, 장식적, 기능적인 역할을 하며 쇠퇴된 광주 구도심지역의 재생에 기여하는 건축물이다.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뷰폴리’는 독일 미디어아트그룹인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Realities : United)의 킴 에들러 & 얀 에들러(Tim Edler & Jan Edler)와 한국의 건축가 문훈이 참여한 작품이다. 강력한 마젠타와 옐로우의 스트라이프로 뒤덮인 계단과 기둥이 회전하고 색이 변하는 33개의 트리비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곳에서 광주의 전경을 감상하였고, 폴리를 직접 움직여 광주의 경관을 조절하는 역할도 참여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광주 동구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 전용로에 설치된 ‘아이 러브 스트리트(I LOVE STREET)’를 견학하였다. 각 글자위에 잔디, 트렘펄린, 모래놀이, 거리철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폴리가 도시 속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스며들어 작동시키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답사를 통해 현대의 정원은 도심 속 다양한 형태로 발전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매개체와의 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현대의 정원의 무한한 영역에 대해 탐구 할 수 있었다.



행사/학술/연구

2.1 환경대학원 행사

1) 2017 커리어데이

2017년 10월 14일 2017년 환경대학원 커리어데이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306호)에서 개최되었다. 커리어데이는 환경대학원 재학생들이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졸업생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기관의 직원채용 계획 및 일정, 학업기간 중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환경대학원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점 등 선후배 간에 다양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

금번 커리어데이에는 연구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직종의 24개 기관에서 총 28명의 멘토가 초청되었으며, 컨설팅 및 멘토링을 위해 참석한 재학생들과 함께 글로컬홀을 가득 채웠다.

커리어데이에 참석한 재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번 멘토링이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였으며, 향후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학생들이 63%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커리어데이를 개최할 때 후배들에게 참석을 추천해주고 싶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나 약 90분의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 제1회 서울대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엄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국제대학원 소전홀에서 서울대학교 내 5개 전문대학원(국제대학원, 보건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이 함께 준비한 제1회 서울대 전문대

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본 심포지엄은 5개 전문대학원장 모임 중 우리 대학원 성종상 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의 공통적인 학문적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 학습의 기회를 갖는 동시에, 서울대학교 및 학의 구성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학술적 제언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앞으로 매년 국제·보건·융합·행정·환경 대학원의 순으로 연계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전문대학원에서 2명씩, 총 10명의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통상정

책부터 고령화, 도시재생, 인공지능까지 각 전문대학원 분야별로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다. 환경대학원에서는 이희연 교수가 “인구 감소,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의 새로운 재생 정책 방안”의 주제로, 김경민 교수가 “도시재생뉴딜-정책 전략 및 이슈”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희연 교수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국토의 여건에 대비하여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재생 방향이 지역주민,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례와 함께 풀어냈다. 김경민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공유하였다. 과거 사례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하였다.

환경대학원 교수들 외에 다른 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각 분야의 교수들이 서로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번 연계 심포지엄은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였다. 앞으로 매년 심포지엄이 개최됨으로써 전문대학원간의 학술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BK21 Plus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제28차 콜로키움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Sweden's new climate policy

2017년 9월 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열린 해외학자 콜로키움에는 스웨덴 기후변화 및 대기정책국 국장인 Stefan Nystrom을 초청하였다. 스웨덴은 교육, 사회제도, 직장,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OECD 국가들 대비 삶의 질이 높은 국가이다. 스웨덴 환경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 세대에게 주요 환경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환경의 질을 위하여 16개 부문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깨끗한 대기 질, 자연적인 산성화, 비독성적 환경, 오존층 보호, 호수와 폭포 수량 유지, 양질의 지하수, 안전한 방사선 환경, 습지 유지, 지속가능한 숲, 다양한 농업 경관, 아름다운 산악 경관, 잘 관리된 환경, 동식물의 풍부한 다양성과 삶 등이 그에 해당한다.

Stefan Nystrom 국장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2100년도의 9가지 온난화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스웨덴의 기후 정책으로는 기후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법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적 시행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되며, 의회의 정기적인 후속 조치, 예산안의 진행상황 연간 보고, 정치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후정책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기후정책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2045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 영역에 걸쳐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2) 제29차 콜로키움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under planetary boundaries

2017년 9월 13일 공적 관리 전문가로서 UN University에서 도시화 분야에 대해 연구 중인 Jose A. Puppim de Oliveira를 초청하

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그는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중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이 기후변화와 도시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Jose A. Puppim de Oliveira는 다층적인 거버넌스에 특히 관심을 두었다.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수행되는 것은 정책 분야와 정치적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 및 지구적 접근, 그리고 양자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은 최근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었으며,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개발 정도, GDP와 탄소 배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발수준이 높거나 GDP가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경제 개발과 환경

적 이슈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 위생으로 인한 문제, 공기나 수질오염이 감소하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새로운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환경 이슈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것에서 삶의 기반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ose A. Puppim de Oliveira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공동이익(Co-benefits)을 추구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 국가,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Jose A. Puppim de Oliveira는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제30차 콜로키움

Th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of EU Using the E3ME Model



BK21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사업팀에서는 2017년 9월 25일, Cambridge Econometrics의 Hector Pollitt을 초청하여 “Th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of EU Using the E3ME Model”의 주제로 콜로키움을 가졌다. 그는 EU의 정책결정 구조 (Institutional Framework)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며, 거시경제학적 모델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EU의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3ME 시뮬레이션 모델을 소개하였고, 케인지언 모형인 E3MG와 신고전모형에 가까운 GEM-E3를 같이 사용해서 동일한 정책 (EU Guidelines)의 영향을 두 트랙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로 Baseline 대비 2050년 GDP 변화를 분석한

결과, E3ME(GDP 증가)와 GEM-E3(GDP 감소)가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E3ME는 케인지언 모형으로 큰 투자충격(CCS, high renewables 등)을 주면 경제 활성화로 GDP 증가가 가능하나, 신고전모형인 GEM-E3는 반대로 투자비용이 커짐으로 GDP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효과의 경우 값의 차이는 있지만 두 모델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근 유럽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증가 목표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2020년까지 2007년 대비 20%, 2030년까지 30% 효율 증가).

또한 EU ETS에 대한 소개(1차, 2차 및 3차)를 하였는데,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배출권이 너무 많아 탄소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고 하였다. 향후 개선 여부에 관해서는 EU에서 계속 노력 중이며,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4) 환경사회학회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 공동 주관 토론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민주주의

BK21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사업팀에서는 2017년 9월 12일, 환경사회학회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주제로 추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윤순진 교수는 “한국 탈원전·에너지 전환의 문제점들”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되짚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 탈원전 계획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찬반 진영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탈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의 차이가 야기된 기준들을 제시했다. 각각의 입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험과 비용, 미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와 탈원전 정책 논의를 어떻게 연결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진(고려대)은 “에너지전환의 정치: 독일 연방의회에 설립된 원자력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독일 연방의회의 원자력 관련 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방사성 폐기물 정책을 분석한 후에 함의를 도출했다. 독일에서는 탈원

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앙케트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치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동반위원회 등이 꾸려져 시민이 참여하는 논쟁의 장이 마련되었다. 독일 사례를 통해 김수진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략 수요가 예측치보다 증가했지만 원전 폐쇄 정책이 실행되었다는 점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증가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는 책임정치와 시민참여의 적용 측면에서 함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재(카톨릭대)는 타이완의 탈핵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타이완의 사례는 정치와 탈원전 운동, 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타이완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민진당의 탈핵 정책, 후쿠시마 원전 사고, 타이완 시민들의 반핵운동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해 가능했다. 결론에서 이시재는 타이완의 에너지 전환이 봉착한 난관과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 소비자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3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행사/학술/연구

1) 도시지역세미나 특강: 동대문 소상공인 사람들

10월 30일 김경민 교수의 도시지역세미나 수업의 일환으로 전 순옥 前국회의원의 “동대문 소상공인 상인들”의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동대문 의류상권의 배후지 역할을 맡고 있는 창신동 봉제공장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는 동대문 소상공인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동대문 소상공인이 현재 처한 문제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이들의 근무지인 창신동이 어떠한 형태로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 및 보조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특강 시간이었다.



2) 도시 및 환경정책 세미나 특강: 한국 및 일본의 용도구역 시스템

환경계획학과 지거첸(Steven Jige Quan) 교수의 ‘도시 및 환경 정책 세미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용도구역 설정’ 수업에서 ‘한국의 용도구역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10월 6일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김지엽 교수는 미국 뉴욕의 용도구역 시스템과 한국의 용도구역 시스템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설명하였다. 복잡한 한국의 용도구역 시스템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다.

또한 11월 6일에는 일본 가나자와 대학교 환경디자인과 Zhenjiang Shen 교수의 ‘일본의 용도구역 시스템’ 특강이 스카이 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Zhenjiang Shen 교수는 일본의 용도 구역 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축 형태 규제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3D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특강 후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 및 토론이 이어졌고, 이는 건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4 교통학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제45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수행되는가?: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2017년 9월 1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국내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재직 중인 김기민 전문위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1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 4대 강 사업, 경인운하,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업 수행에 대한 검토과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그 값을 다기준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AHP)하는 방법이다. 2010년 이후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재생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었고 일반지침 및 부문별 지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교통 예측의 오차율이 감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2014년 11월부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와의 차이점은 매입 협약 등 우발채무가 포함되고 의사결정의 부분에서 종합평가(AHP)를 수행하지 않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2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으로 이어졌다. 박찬운 박사수료생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을 평가할 때 4대 편익 추정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김기민 전문위원은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편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지방도 사업의 최소 B/C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 지자체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사업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며, 최근에는 재정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동재 박사수료생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 정책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보다는 종합평가(AHP)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지방부 사업에 관하여 사업 목적이 다양하므로 경제적 편익이 아닌 해당 목적에 맞는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민투표나 편익평가보다는 사업 목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평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교통학 전공 연구프로젝트 자문회의 및 개강 총회

2017년 8월 2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환경계획학과 교통학 전공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프로

젝트를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산업연구

원 등 교통학계의 주요 연구원에서 현재 책임연구위원으로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7명의 동문을 초청하였다. 프로젝트 연구진을 비롯하여 모든 교통학 전공 재학생들에게 열린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활발한 토론을 마친 후 교수진과 재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2017년도 2학기를 활기차게 시작하자는 의지를 다지며 낙성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개강 총회를 진행하였다. 총회에는 앞서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던 동문들도 함께 자리하여 교수진과 재학생들을 연결해주고 더욱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다.



2.5 환경관리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생지화학 연구실 특강: 영구 동토층 지역의 토양

생지화학 연구실(환경계획학과 오능환 교수)에서는 2017년 11월 22일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정지영 박사를 초청하여 “Soils in Permafrost Regions(영구 동토층 지역의 토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전반부에서는 영구 동토층 내 여러 지형들의 특성과 생성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후반부에서는 현재 극지연구소 산하 극지생명과학연구부에서 진행하는 북극 내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현재 극지연구소에서는 알래스카 및 캐나다의 극지 지방에서 OTC chamber를 이용한 식생 성장연구 및 강설량 조절 실험을 진행 중인데, 이러한 실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극지 지방의 탄소순환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전반부 발표에서는 정지영 박사가 북극 답사 시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현장감 있는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후반부에도 실제 북극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참석자들 간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발표 이후에는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기존에 수업이나 여러 발표 등에서 많이 접할 수 없었던 북극의 토양 및 자연환경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세미나 참석자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더불어 직접 북극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정지영 박사는 질의응답 후반부에 극지 지방과 직접 접하지 않은 한국에서 극지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역설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세계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관악모듬강좌 특강: 지속가능한 발전과 언론의 역할

2017년 10월 26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 윤순진 교수의 관악모듬강좌 수업에서 특강이 있었다. 이날 특강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최승호 뉴스타파 PD의 강연 2시간과 학생들과의 토론 1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특히 최근 공론화되었던 일련의 언론사 파업, 방송사와 권력의 유착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언론의 독립성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탐사 보도를 수행하고 있는 최승호 PD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정권의 언론 장악이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해주었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최승호 PD는 2017년 8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을 중심으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공범자들>은 최근 10년 동안 공영방송 MBC, KBS가 정부의 언론 장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령당했는지 그 과정을 낱알이 보여준다. 공영방송의 간부와 구성원들을 정부 친화적인 인사로 개편하고, 방송 내용을 조작했다. 최승호 PD는 <공범자들>과 특강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의 언론 장악으로 인해 사회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 도시 환경 교통 융복합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융복합 전공 집담회 : 예술, 문화 그리고 도시환경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9/19, 10/10, 10/31, 11/14, 11/28)에 걸쳐 환경대학원 융복합 전공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담회의 주제는 “예술, 문화 그리고 도시환경”으로, 도시재생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회 연구집담회에서는 권순택 청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장이 ‘마을주민에서 마을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여 행정에 전달하고, 주민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심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청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의 경험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어 10월 10일 구본호 티엘갤러리 관장은 ‘장소 속의 나-기획자와 방문객’ 강연에서 거주민을 배려하는 공공미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10월 31일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유희공간을 일시적이며 전술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11월 14일 제4회 집담회에서 월메이드의 허창주 대표는 공공예술과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강연에서 주민 주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11월 28일에 진행된 마지막 집담회에서는 섬아트문화연구소의 김해곤 소장이 향토·주민·인문학·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예술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본 집담회에는 도시재생과 문화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환경대학원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교 및 외부에서도 참가하였으며, 예술과 문화의 관점에서 도시 환경을 바라보고 다양한 해결책 및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전문가 및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환경관리특강 :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특성 분석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2017년 11월 6일 고준호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장)는 환경관리특강에서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특성 분석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박사는 향후 교통부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향후 친환경자동차의 전력(에너지) 소비량 산출이 중요한데, 전력 소비량 예측은 공급 목표연도, 일평균 주행거리 추정, 전기자

동차 연비 추정, 충전시간 및 횡수 산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준호 박사는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교통수단별(자가용 승용차, 법인/개인 택시, 시내버스) 전력 수요를 산출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향후 친환경자동차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지,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이 교통부문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열의가 돋보였던 자리였다.

3) 환경관리특강 - 기후변화 정책 및 기후경제모형

2017년 12월 4일 황인창 박사(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는 환경관리특강에서 “기후변화 정책 및 기후경제모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새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와 경제학적 접근을 활용한 기후변화 분석 틀이 소개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의 연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과거 IPCC 3차 보고서에서 강조된 감축 중심의 기술적 접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적응(Maladaptation)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등장한 개념으로, 공편익 및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다. 두 번째 논의의 축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꼽을 수 있다. 이러

한 불확실성은 장기간적 범위(long time horizon), 인위적 요인(anthropogenic drivers), 지구 시스템(earth system), 미개척된 영역(terra incognita)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기후변화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최근의 논의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방법이 소개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자를 논리적으로 배열한 뒤 모형화 한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을 소개하였으며, DICE/RICE, FUND, WITCH, PAGE 등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의 다양한 수치모형이 각각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리였다.

2.7 환경조경학과 행사/학술/연구

1) 2017 제24회 조경디자인캠프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서주환)가 주최하는 <2017 제24회 조경 디자인캠프>가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유미 교수와 송영근 교수가 조경디자인캠프의 교장과 교감을 각각 담당하였다. “놀이도시-공공공간의 유희적 역할(Ludic City-Playful Uses of Public Space)”을 주제로 한 이번 캠프는 ‘동네에서 놀기-동네에서 하루 종일’, ‘차투리땅에서 놀기-버려지고 소외된 공간의 재생’, ‘일터에서 놀기-공개공지 등의 업무지역에서의 유희’, ‘광장에

서 놀기-시위를 계기로 탄생한 놀이문화’라는 주제 하에 총 4개의 스튜디오로 진행되었다. 총 12개 작품 중 대상에는 ‘어반정글’(내사람팀), 우수상에는 ‘앙코르 난곡’(우리42팀), ‘사람앤사람’(트리플레이팀), ‘비가 오고 그래서’(우수수팀)가 선정되었다. 교장 이유미 교수는 “열흘간의 캠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과 행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경디자인캠프가 지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2) 2017 International Seminar on Vietnam Social Housing

서울대와 베트남 사회주택연구회에서 주관하는 “2017 베트남 사회주택 국제세미나”가 11월 2일 서울공대 39동 B103호에서 개최되었다. 베트남 사회주택 세미나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추진 중인 사회주택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전문가 간의 경험 공유를 위해 개최된 학술 세미나이다. 세미나에는 당민남 원장(투아티엔 후

에성 도시계획연구원 원장), 최경호 센터장(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대학원) 등이 참석하여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사회주택정책, 발전 과정과 건설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개발 및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한국의 사례와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사 회 : 환경대학원 김세훈 교수

주제발표 01 Social housing policies in Vietnam and SDGs : 베트남 사회주택 정책과 SDGs
홍나미(베트남 사회주택연구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02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social housing in Vietnam : 베트남 사회주택의 발전과정과 건설사례
당민남(투아티엔 후에성 도시계획연구원 원장)

03 Social housing in urban development_the case of Korea : 도시개발과 사회주택_한국의 사례
박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04 Growing ivy - The making of social housing sector as a PSPP housing model in Seoul : 넝쿨의 즐거움
- 3자 협력형 주거모델로서의 서울시 사회주택 부문의 형성
최경호(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



3) 환경보전과 관리 특강 시리즈

환경조경학과 손용훈 교수가 진행하는 환경보전과 관리 수업에서 국토정책과 경관에 관한 특강을 네 차례 진행하였다. 환경보전과 관리 수업에서 다룬 주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경관’, ‘자연보호 사상’, ‘국립공원’, ‘도시녹지’, ‘도시하천’, ‘역사환경’, ‘문화경관’ 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강에서는 현재 국내 각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 및 정책 전문가 4명을 초청하여 국토, 환경, 산림, 문화재에 관한 주요 정책과 담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산림정책과 국토환경을 주제로 이루어진 국립산림과학원 김성학 박사의 특강은 산촌, 산림정책, 산림복지, 도시숲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이고 63%가 산림이다. 산림정책이 어떻게 국토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많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최근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산업으로서의 임업에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인 산림을 지나, 국민에게 복지로서 제공하는 산림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 외에도 산촌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시숲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한 담론을 진행하였다.

자연환경 보전 주요 정책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이루어진 넥스스환경디자인연구원 조동길 박사의 특강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한반도 생태축, 자연자원 총량제,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보전 기본계획, 도시생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다루었다. 특히 2020년 7월 20일 일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13가지 대안을 설명하고, 토지공공재, 토지공

개념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나눴다.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자연환경 보전법 법제화, 도시생태환경 현황 지도(비오톱 지도) 작성 의무화에 관한 현안과 주요 이슈들을 다뤘다.

국토경관정책과 관리 주제로 이루어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박사의 특강에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인 경관에 대하여 정책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경관법과 경관협정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경관에서 참여의 이슈를 다루는 경관협정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경관법 제정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정 방안과 그 과정에서 논의된 많은 사항들을 다뤘다.

명승정책과 국토경관 주제로 이루어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박사의 특강은 자연문화재, 명승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문화재를 보호에서 경직된 태도를 가졌던 과거의 행정에서 자연문화재를 다루며 문화유산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현재의 문화재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았다.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는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철학적 담론을 나누었다. 명승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해 최근 사용되는 과학기술로 LiDAR 영상의 활용이나, 3D 스캐닝, 드론 영상 등의 활용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본 특강은 환경보전과 관리 수업의 일부로 진행되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오픈 강의로 진행하였다. 특강 일정은 포스터를 통해서 공지되므로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기회에 참석하기 바란다.



4) 2017학년도 2학기 환경조경학과 과제전

12월 19일 화요일 11시부터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는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동안 수업에서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과제전에서는 도시공간연구스튜디오(지도교수 서예레), 도시오픈스페이스계획과설계(지도교수 성종상), 정원설계(지도교수 이유미), 도시설계리빙랩(지도교수 이석정), 협동과정 도시설계 개설과목 도시설계스튜디오2(지도교수 김세훈) 등 5개 스튜디오 수업과 환경·생태계획(지도교수 송영근), 환경정보수집기법연구(지도교수 송영근), 환경보전과 관리(지도교수 손용훈), 환경설계와 디지털미디어(지도교수 서예레) 등 4개 이론 수업 등 총 9개 수업에서 46개의 결과물이 전시되었다.

이번 학기에도 실무에 계신 동문들이 참여하여 우수설계 크리틱을 진행했으며, 대상에는 환경조경학과 송아라(2학기)의 "MEMENTO MORI"(도시공간연구스튜디오), 협동과정 도시

설계 김주연, 민대희, 최자은, 환경조경학과 이민호(1학기)의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공간 설계"(도시설계스튜디오2), 최우수상에는 환경조경학과 김정혜, 김명조, 유수하(2학기)의 "Walkable Waterfront G-Valley"(도시설계스튜디오2), 환경조경학과 박영수(2학기), 이담(1학기)의 "Green Stream in GOYANG CITY"(도시설계리빙랩), 우수상으로는 환경조경학과 이규정, 임혁위(3학기)의 "안산역 역세권 계획"(도시오픈스페이스계획과설계)과 환경조경학과 서승우(1학기), 최유정(2학기)의 "WATER LO:OP GOYANG"(도시설계리빙랩)이 선정되었다. 이번 심사에는 이재준(석사 88), 안승홍(석사 94), 유형식(석사 94), 허광철(석사 98), 박영선(석사 98), 민병욱(석사 00), 이호영(석사 02), 김순기(석사 08) 등 동문들이 참석하여 주었다.



2.8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학술활동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승화**(박사과정)는 2017년 10월 12-14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열린 제 14회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APSA 2017)에서 "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finance, affordable housing and commercial housing supply in China "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중국의 270개 도시를 선정하여, 2009-2013년 사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중국 토지재정과 경제적용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정이레**(박사과정)는 2017년 10월 12-14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APSA 2017)에서 "The effects of household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heating energy consumption"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난방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와 주택의 특성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택을 통한 간접효과에 대해 실증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건**(졸업)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 **Sotiris Tsolacos 교수**(Dept of Real Estate, Cass Buisness School)는 2017년 7월 대만에서 개최된 2017 Asian Real Estate Society and Global Chinese Real Estate Congress에서 "What Drives Cap Rates in Asian Office Markets?"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자금의 유동성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수**(석사과정)는 2017년 8월 19일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SPSD)에서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 and Korean Food Bank Governance Models for a More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라는 주제로 독일과 한국의 푸드뱅크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발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김기은**(박사과정)과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Ecological Indicators (2108, (85C), 664-673page)에 "Ranking surface soil pollution potential of chemicals from accidental release by using two indicators calculated with a multimedia model (SoilPCA)"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매체 모형 개발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토양 오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대표적 인자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결과를 통해 화학물질의 물성 인자 값만으로도 포토오염 잠재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쿨란**(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10월 19-22일 대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환경사회학회(ISESEA)에서 "A Comparative Study On Endangered Bears Protection in South Korea and Mongolia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 A Case Study On The Asiatic Black Bear and Gobi Bear"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에서 멸종위기에 이른 반달가슴곰과 고비사막곰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 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김주리**(석사과정)는 2017년 8월 19-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Factors Affecting Urban Flood/Storm Resilienc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라는 주제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재해 레질리언스 영향 요인 분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누린**(석사과정)은 2017년 8월 19~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Role of Waste Management in Resource Decoupling: Case Study of Japan"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유주연**(석사과정)은 2017년 10월 19-22일 대만에서 열린 제6회 국제환경사회학회(ISESEA)에서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erg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Justice : focusing on energy policy of New York City & Seoul"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뉴욕시와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을 에너지정의의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정책이 에너지정의의 관점에서 분석가능하다는 것과 정책수립과 집행단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이진욱**(박사수료)은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와 2편의 SCI급 논문을 출판하였다. 그 중 'Conflicts of Interest and Change in Original Intent: A Case Study of Vacant and Abandoned Homes Repurposed as Community Gardens in a Shrinking City, Daegu, South Korea.' 논문은 Sustainability, 9(11)호에 실렸으며, 지난 2016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공·폐가를 활용한 도시텃밭을 조성 과정부터 추적하였고, 공유지를 둘러싼 이해주체 간의 갈등을 공·폐가 정비 정책 및 주거환경특성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이진욱**(박사수료)과 **김무한 박사**(국립생태원)가 공동연구한 논문 'Perspectives on the Direction of the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from Local Residents and Non-Local Visitors'가 Sustainability, 9(10)에 게재되었다. 본 논문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들의 인식 차이를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Cmap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정원의 지속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Yiwen Han**(박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Sustainability; SSCI/SCI: 1.789에 "Spatiotemporal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Informal Settlements in a Metropolitan Fringe: Seoul (1950-2015)"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숲과 습지 등 도시 외곽지역의 민감한 서식지를 위협하는 비공식적인 정착촌의 형성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을 대상으로 1950년부터 2015년 동안의 토지 이용 및 토지 피복 변화(LULC)를 분석하여 자발적인 정착촌과 비공식적인 정착촌을 구분하고, 시대 흐름에 따른 특징 및 양상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인 정착촌의 공간적 특성이 소외된 추세로 나타났음을 시사하였으며, 향후 비공식적인 정착 재개발의 평가 과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원자연**(박사수료)과 **김준현**(박사수료)는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 9월 SSCI 저널 Landscape Research에 논문 "Sociocultural factors of the late Ming and Qing Chinese garden landscape, based on philosophies seen in Yuanye, Zhangwuzhi, and Xianqingouji"이 게재확정 되었다. 이 논문은 중국의 명말청초 시기 소주의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사회계급적 함의를 당시의 정원서인 원야, 장물지, 한정우기 세편을 교차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2018년 온라인 출판 후 지면출판 될 예정이다.
- ◎ **협동과정 조경학 김예림**(박사과정)은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와 함께 2017년 8월 19~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Wedding photography and Tourism: Emerging Tourist Destinations in Jeju Island,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성이시돌목장, 카멜리아힐, 사려니숲길을 중심으로 셀프웨딩사진과 관광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김준현**(박사수료)은 지난 9월 윤예화, 김지나, 조한솔, 고하정(이하 박사수료)과 제 1저자로 공동연구한 “Place attachment and an old apartment complex: Focusing on the urban redevelopment site in Seoul”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회인 UIA 2017 Seoul World Architects Congress에서 포스터 발표 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2016년 협동과정 조경학 융복합집담회 기금을 후원받아 작성했으며, 재개발 예정인 반포 주공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기존 아파트 단지의 장소애착 요인을 밝혔다.
- ◎ **협동과정 조경학 김지나**(박사수료)는 2017년 8월 19~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Walking Trail for Sustainable and Eco-friendly Life in DMZ Border Region of Korea”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DMZ 접경지역을 경험하는 매체 중 하나인 도보여행길의 경관과 이용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상향식의 운영방식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도보여행길이 DMZ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여기활동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박해경**(박사과정)은 지난 10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Geological Society of Korea and 2017 Annual Fall Joint Geology Meeting에서 "국가지질공원 관리를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UAV와 SfM-MVS 기법 및 VR을 이용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드론과 SfM-MVS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성된 지질공원의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VR Goggle에 적용, 즉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 구현함으로써 지질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불어 관람 사각지대에 놓인 노약자 계층들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이제이**(박사수료)와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University of Zutich에서 열렸던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Arts and Archaeology에 참석하였다. 성종상 교수는 'Imagination and naming - the aesthetics of invisibility in Joseon scholar garden'라는 제목으로, 이제이는 'Figures and activities in garden use in the late Joseon period through cases of Ahoi-do paintings'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였다. 강연 후 각국의 예술사 및 정원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정원의 미학에 대해 토론하고 교류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장림**(박사과정)과 **환경조경학과 임종호**(석사과정)는 **최준호**(건축학 박사과정), **한정우**(건축학 석사과정)와 함께 2017년 8월 19~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Reinterpreting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through One-person households' lifestyles: A Case Study based on Job Seekers in Inheondong Gwanak-gu Seoul'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인현동의 20~30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YOUTH SUPPORT'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각한 근린 범위가 얼마정도인지, 선호한 시설을 어떤 것인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서 계획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Yingnan Li**(박사과정)와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The 12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cology에서 “Microclimatic Variations of an Abrupt Urban Forest Edge.”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가장자리효과를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관악구 관악산에 위치한 도시 숲 가장자리에서 변화하는 미기후 특성을 특성화하였다. 2016년 8월 3회에 걸쳐 기온, 상대습도, 토양 온도, 토양수분 및 PAR에 대한 가장자리 효과를 조사했으며 각 변수

들이 가장자리 효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반응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상대습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산림 경계로부터 최대 15m까지 가장자리 효과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도시 산림지역의 설계에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도시지역의 파편화된 산림보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Yingnan Li**(박사과정)와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8월 19~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Microclimatic Edge Effects in an Urban Forest."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도시 숲에서의 미기후 효과를 특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의 숲 가장자리를 연구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거의 연구되지 않은 산림 가장자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기 온도, 상대 습도, 토양 온도 및 PAR을 요인으로 선택하고 삼림 경계 30m에서 각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각 요인마다 다른 패턴이 있음을 결과로 보여주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Yiwen Han**(박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8월 19~20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Mapping and Quantifying Variations in Ecosystem Services of Urban Green Spaces: a Test Case of Carbon Storage at a District Scale in Seoul (1975-2015)"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1960년대 이후 서울시 남부 지역의 도시 확장 및 개발지역에서 도시 녹색 공간에 의해 생성된 생태계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시공간적 변화를 정량화하는 것으로 공간패턴을 탐색하기 위해 InVEST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그린인프라 및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 역사적 흐름과 관련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 ◎ **환경조경학과 김정혜, 서여령**(이하 석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8월 9일, 인도네시아 세마랑에서 열린 국제학회 ICSADU(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in Architectural Design and Urbanism)에서 학술발표를 진행하였다. 김정혜(석사과정)은 "Planning a new type of cultural community space in Goyang city, Korea"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웃 간 정서적 교류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공공유희공간 활용 방안을 제공하였다. 서여령(석사과정)은 "Problems of low-rise residential area of Seoul : Focused on Malmi village of Guemcheon-gu, Seoul, Korea"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금천구의 말미마을을 대상으로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 **환경조경학과 Jessica Margarita Barahona Aragon**(석사과정)은 지난 8월 24-2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iculture and Forestry 에서 'Honduras indigenous agricultural practices for sustainable agroforestry and shade-grown coffee'의 주제로 Virtual presentation에 참여하였다. 이 발표는 온두라스의 전통적인 농업삼림 시스템이 커피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같은 주제로 10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하였다.

2) 국내학술활동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한수경 박사(졸업)**와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0권 2호에 "맞춤형 빈집 활용을 위한 근린주거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빈집의 분포특성, 근린의 물리적 환경 특성, 거주자 특성, 주택시장 및 주택 건축 현황으로 구성된 근린주거환경 분석지표를 선정하여 빈집지구를 유형화하였으며, 각 유형별 맞춤형 빈집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익산시 4개 사례지구(통 단위)를 대상으로 근린주거환경을 분석한 결과 해당지구는 황폐지구, 빈집돌봄지구, 잠재빈집 관리지구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근린주거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빈집지구 유형별 맞춤형 빈집 활용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슬기(박사과정)**와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일제강점기 한양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중상류층 지역화 과정"을 서울과 역사 97호에 게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혜화동과 명륜동 일대 설립된 입지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변화해가는 지역의 모습을 그렸다. 한양도성 안 공간 중 정치적 이유로 저개발지로 남아있던 해당 지역은 점차 발전하여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문화촌으로 성장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재성(박사과정)**, **이디애(박사과정)**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0권 2호에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른 빈집 유형 분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빈집의 총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빈집의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을 고려한 빈집의 유형 분류를 제시하였다. 유형 분류를 위한 과정을 구축해 과정별로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제시하고 현장 조사와 기존 자료를 통해 빈집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빈집 유형 분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종겸(박사수료)**과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52권 4호에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_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2015년 11월 4일에 개최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에서 유곡리 통일촌의 사례를 들어 DMZ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등 국가촌락으로서 통일촌의 존속 위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는 통일촌 자체의 지속가능성 차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DMZ 국가촌락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한구영 박사(졸업)**과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9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공동개최한 제3차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에서 동대문시장 패션클러스터가 오늘날 의류도매시장의 중심지로 진화되는 과정과 세계패션산업 변화 흐름과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이 클러스터 내부 각 사업체의 역할과 네트워크가 어떠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유슬기(박사과정)**와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10월 대구에서 개최한 20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일제강점기 교외지역의 도시화 과정-청량리 일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1899년 청량리로의 전차 노선 개통 후 상류층의 교외 여가·유흥공간으로, 앵커시설 설립 후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결과 1940년 조선대박람회 개최장소가 된 청량리 지역을 소개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강현미**(석사과정)은 2017년 11월 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LID 적용 방안 탐색: 인천광역시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Low Impact Development(LID)를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의 기존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헌연구와 성공적인 프로젝트 분석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용석**(석사과정)과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10월 28일 대구한의대학교(삼성캠퍼스)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주거입지선택 및 통행시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레벨 4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가 도입되게 된다면 이동 중에 다른 일을 하며 생산적 시간이 창출되고 이로 인해 통행비용이 감소되며 주거입지선택 가운데 교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Nana Yaw Oppong-Yeboah**와 **이지원**(이하 석사과정)은 2017년 6월 28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Resilience of Cities in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태풍으로 인하여 정전을 겪는 사례가 많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전기 공급 방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태양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 및 분석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종근, 강모근, 박선미**(이하 석사과정)는 2017년 11월 3일 개최된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몽골 게르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단위의 '자조주택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몽골 게르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민들 사이에서 일부 진행중인 '자조주택(self-help housing)'을 커뮤니티 단위로, 그리고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제안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이지원**(석사과정),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10월 28일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에서 열린 20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 study on changes in the private housing market due to housing policy in South Korea and Taiwan”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970년 이후 대만과 한국의 정부의 주택 정책이 민간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조규원**(석사과정)은 2017년 11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추계 환경정책학회에서 "이분법적 도시구조와 여성대상 사회문제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근대 도시구조의 이분법적 구조가 경제활동의 참여자가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 고민했으며, 근대화 이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구조가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낳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지며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카를로스**(석사과정)는 2017년 10월 28일 대구한의대학교(삼성캠퍼스)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제성장 전락과 주택부족 감소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공공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주요 문제와 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논문에서 몇몇 저자들의 이론과 담론에 의하면, 사회주택 정책의 영향에 대해 몇 개의 정책 추천과 결론들이 긍정적으로 개발되었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GRI연구 제19권 2호에 “교통수단의 이용 차이와 지역 특성이 도시민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에 미치는 영향”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 접근성에 대한 영향이 BM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전국을 기반으로 영향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교통연구 제24권 3호에 “불법주정차의 사회적 비용에 기반 한 주차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우리나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추정하여 주차장을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세금혜택 또는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세금부과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서울시연구 제18권 2호에 “통근시간을 활용한 지역별 승용차 감축에 대한 대중교통정책 방향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외, 구내, 동내로 구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통해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교통연구 제24권 4호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자료기반 운전자 행태를 고려한 위험운전자 판별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택시 DTG자료를 사용하여 택시위험운전자를 판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구축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교통학회지 제35권 3호에 “버스 정류장 정차시간 및 정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버스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한 시설물을 기반으로 영향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교통학회 제77회 학술발표회에서 “1. 자동차 성능을 고려한 택시사고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장재민, 이영인)”, “2. 스마트 기기 사용이 통근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장재민, 이영인)”, “3. 주거특성이 통근활동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장재민)”, “4. 직장 및 교통 특성에 대한 이사 의향에 관한 연구(장재민)”, “5. 직장 및 교통 특성이 수면시간에 미치는 요인분석(장재민)”, “6. 계절 및 대여특성이 공공자전거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장재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해당논문 발표들은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분야와 융합시킬 다양한 변수를 가용하여 교통특성과 타분야의 변수들과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외에도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감소방향 및 친환경수단 이용률 개선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김도희**(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교통학회에 “DSRC 자료를 활용한 교통류 기본관계도 및 기본관계식 도출”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해당 논문은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고속도로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관계식을 도출하였다. 혼잡도로와 비혼잡도로를 구분하고, 혼잡도로를 다시 혼잡시간과 비혼잡시간으로 구분하여 기본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평균법, 정규화과정을 거쳐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 일정한 계수범위를 구할 수 있었고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규칙성이 없다고 알려진 바 있는 혼잡도로에서도 일련의 규칙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향후 고속도로 교통 관리 시스템이 고속도로 내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교통학 전공 김주영**(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교통학회지 제78회 학술발표에 “DSRC자료를 활용한 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의 효과평가방법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해당 논문은 DSRC자료를 활용하여 구간과속단속, 지점과속단속, 무단속구간의 개별차량 운행패턴을

분석하였고 속도저감율, 속도정온화율, 제한속도준수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구간과속단속의 효과평가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구간과속단속이 효과가 있다는 것과 지점과속단속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고, 향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시에 구간과속단속은 권장되나 지점과속단속의 도입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 **교통학 전공 김혜민**(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제77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에 “고속도로 교통류 분석에 기반한 도로구간 혼잡경계지표: DSRC 자료를 이용하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반의 RSE 검지기 자료를 이용하여 신갈JC-양재IC 사이에 위치한 도로구간에서 추출한 차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류를 분석하였다. 구간별 그래프의 특징을 분석하여 혼잡경계 범위 및 값을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속된 도로구간의 교통 혼잡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도로구간의 교통 특성을 반영한 구간별 도로 운영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교통학 전공 박현빈**(석사과정)과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제77회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서울시철도 이용자의 서비스 니즈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에 기록된 실제 도시철도 이용자가 느낀 불만사항을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호선별로 나타나는 주요 서비스 니즈를 도출하였다. 또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니즈 사항과 기존의 도시철도 품질평가체계와의 비교를 실시하였고, 향후 도시철도 품질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방대환**(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제77회 교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차량계적자료를 활용한 통행행태기반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확률 분석 방법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고속도로 노변에 설치된 검지기(Road Side Equipment, RSE)를 통과할 때 수집되는 개별차량의 경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행태를 최초 고속도로 진입부터 휴게소까지 통행시간, 통행거리 그리고 휴게소에서 최종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지표로 개별차량의 휴게소 이용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휴게소의 수요분석 및 서비스 향상 전략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교통학 전공 방대환**(석사과정)과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제77회 교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도시철도 정차시간 산정 모형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의 정차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정거장의 특성(승하차시간, 차내 혼잡율)과 승객의 행동패턴(유효출입 문 폭)을 반영한 정차시간 산정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열차 운행시간 중 이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시간대를 4가지 시나리오(오전첨두, 주간 비첨두, 퇴근 첨두, 저녁 첨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정차시간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정거장의 특성과 승객의 행동패턴을 반영한 적정 정차시간 산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무인열차 확대에 의한 최소정차시간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 **교통학 전공 성민경**(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대한교통학회에서 주최한 제77회 학술발표회 교통 AI 및 빅데이터 세션에서 “DSRC 자료를 이용하여 안개시 고속도로 통행특성 분석: 영동고속도로 상습안개지역(대관령~강릉IC 부근)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교통분야 빅데이터인 고속도로 DSRC 자료를 이용하여 대관령부근 안개상습발생지역의 2015년 안

개발생일과 비안개발생일을 대상으로 하여 차량통행특성을 비교하였다. 차량의 통행속도 및 속도분산, 서행지속시간, 안개심각도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여, 안개발생시의 차량통행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안개발생일의 통행특성과 비안개발생일과의 통행특성 차이를 보여주며, 안개발생일에도 비안개발생일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적용하는 통행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오혜림**(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 외 2인은 2017년 9월 29일 대한교통학회 제 77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SRC자료를 이용한 교통혼잡지표 평가 및 제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 적용 가능한 교통혼잡지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비교를 위해 기존의 혼잡지표 5가지, 즉 혼잡시간지표, 통행율지표, 혼잡심각도지표, 도로혼잡지표, 밀도혼잡지표를 함께 경부고속도로의 상행구간 신갈JC부터 양재IC 구간에 적용하였다.
- ◎ **교통학 전공 전서희**(석사과정)와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교통학회 제77회 학술발표회에 “DSRC자료를 이용한 줄음쉘터 이용확률 모형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하였다. 해당 논문은 DSRC 자료를 이용하여 오산줄음쉘터(서울방향)의 줄음쉘터 이용확률 모형을 개발하였다. 독립변수는 줄음쉘터 구간 전/후의 운전지속시간과 통행거리이며, 종속변수는 줄음쉘터 이용여부이다. 모형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일자 실제 DSRC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및 승용차에 대한 줄음쉘터 이용확률 모형은 적절히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트럭 및 버스는 개별 특성 및 표본 수의 한계점으로 인해 선정 독립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줄음쉘터의 이용확률을 파악하고 수요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교통학 전공 전서희와 엄기훈, 강성재**(이하 석사과정)는 한국기후변화학회 2017 하반기학술대회에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비교분석: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하였다. 해당 논문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에 대해 양자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의의 및 한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협약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두 협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범위와 감축대상 국가, 감축목표이다. 하지만 두 협약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 원론적 논의에 그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한국의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교통학 전공 최성훈**(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한국ITS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SRC자료를 이용한 휴게소 위치 선정 지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2015년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구간별 장시간 통행차량을 파악하고 이 구간 중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대상으로 휴게소 구간의 통행차량과 휴게소 이용차량을 산정하여 휴게소 이용률을 구하고 휴게소 구간의 피로도지수를 통행시간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휴게소 이용률과 통행시간에 따른 피로도가 일반 구간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장시간 통행차량의 비율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하면 정비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휴게소의 추가적인 설치시 우선순위 선정에 피로도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휴게소 선정지표로 제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박종문**(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공간환경학회의 공간과 사회 제27권 3호(통권 제61호)에 “공간성을 통해 본 아파트 에너지 전환 운동의 확산 양상: 서울시 아파트단지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전환 운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아파트 사례에서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 어떠한 역

할을 하였고, 이러한 공간성을 활용하는 주체와 이들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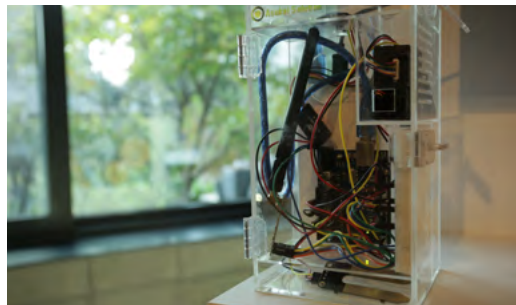
- ◎ **환경관리 전공 박종문**(박사과정)과 **이성재**(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 제28권 4호에 “공동체에너지 개념을 통해서 본 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에너지의 유형인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 주체에 따라서 설립과정과 주요 활동, 지역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김기은**(박사과정)과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환경공학회에서 “대기로 누출된 화학물질의 표토 오염 잠재력 평가”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50종의 유기 화합물이 각각 다량으로 대기로 누출되었을 경우 어떤 물질들이 표토 오염 측면에서 더 위험한지를 물질별 ranking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이성재**(박사과정) 외 1인과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7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인구구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및 고령화가 가계부문의 에너지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고령화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 외에도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가정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김주리**(석사과정)는 7월 21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 된 Climate Scouts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전문가 특강 세미나를 수료하고, 팀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우수자 특전으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3)에 참관하였으며, 기간 중 우리들의미래가 호스트로 참여하는 공식 사이트이벤트인 'Innovations in Green Investment and Economic Structures for 2 tonnes of carbon per capita by 2022'을 서포트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김준성**(석사과정)은 2017년도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의 대학원 세션에서 “한국 전력의 학교태양광 사업이 에너지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전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전력의 지위와 학교태양광 사업을 해석하였다. 또한 전환 이론이 실증적으로 적용될 때 발생하는 ‘전환의 딜레마’라는 개념으로 학교태양광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에너지협동조합의 갈등을 설명하였다.
- ◎ **환경관리 전공 차지연**(석사과정) 외 3인과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제 72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강수에 의한 대기 중 유기탄소의 습식 침적량과 광학적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포스터에서는 그동안 탄소 순환 수치에서 계산되지 않았던 강수를 통한 유기탄소의 대기 침적량과 그 생지화학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계절풍 기후대에서 강수패턴에 따라 유기탄소의 기원과 그 특징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박해경**(박사과정)은 대한원격탐사학회 제 33권 6호 Special Edition(Special Issue on Best Papers on Environmental Geospatial Information)에 "Point cloud와 solid model을 기반으로 한 단일수목 입체적 정량화기법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도시 내 수목 측량이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측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드론 images를 통해 구성된 point cloud와 solid modeling을 이용하여 수목의 입체적 측량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검증과 평가는 지

상라이다 측정자료 및 타 3D 모델 측정치를 이용, 수목의 입체적 정량화는 향후 도시녹지관련 다양한 모델링을 위한 입력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6월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와 11월 대학원격탐사학회 하반기학술발표(충남 예산, 리스스파캐슬)에서 발표된 바 있다.

- ◎ **환경조경학과 김용진**(석사수료)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 23권 3호에 “IPA를 활용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거주민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을 대상으로 2011년~2013년의 3년간 시행되었던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 IPA기법을 활용하여 사업 세부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있어서 거주민의 인식평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 **환경조경학과 하재영**(석사과정)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6호에 “대규모 광장 집회에서 발생하는 군중의 혼잡 양상에 대한 고찰 -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를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2017년 3월 11일 발생한 20차 집회를 대상으로 군중의 움직임을 광역적 분석과 광장 내 분석을 통해, 군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구간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혼잡구간은 군중의 상태가 동적인 공간이, 정적인 공간에 비해 도시 물리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 이벤트 발생 시 혼잡구간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 ◎ **환경조경학과 김니영**(석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10월 26일 나사렛대학교에서 개최된 추계 환경복원기술학회에서 "도시 근린공원 내 자연체험 놀이공간 조성에 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학부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도시 근린공원 내 자연체험 놀이공간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keyword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자연체험 놀이공간 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공통적 수요를 가지며, 생태적 요소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시설물 운영을 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환경조경학과 김소연**(석사과정)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근교도시 도시숲 경계부의 활용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숲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부족하여 발생되었던 숲의 난개발과 활용성 부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특히 숲과 개발지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잠재력을 기능과 가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숲을 다기능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숲의 혜택을 기능과 가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도시숲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일반인의 지지를 얻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환경조경학과 노승민**(석사과정)과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 한국환경조경학회 연합 추계학술대회에서 “조경분야 디자인 톨로서의 가상현실 게임엔진의 활용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연구의 배경으로 VR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실공간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유사경험을 큰 가능성으로 보았다. 연구방법으로 VR기술의 상당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온 게임제작 소프트웨어 Unreal Game Engine을 활용하여 직접 가상공간 테스트베드 모델을 제작하여 다양한 자연환경 및 기후환경요소를 테스트하였다. 결론에서 해외 연구 및 활용사례를 분석한 시사점과 미래의 조경분야의 VR기술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 ◎ **환경조경학과 임혁위**(석사과정)는 지난 2017년 8월 1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Analysis on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Drought in Yunnan in 14 Years and its Relationship with Vegetation'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서남부 Yunnan Province의 가뭄에 주목하여 이와 지피에 시간적·공간적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 ◎ **환경조경학과 최희준**(석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10월 26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항공 LiDAR 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숲 성장량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2012년도와 2015년도 천안시 항공 LiDAR 데이터를 활용하여 천안 봉서산 식생의 성장량과 성장지역을 추정한 것으로, 분석 결과 3년간 66cm의 수직생장이 발생했음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항공 LiDAR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지 전체 식생의 변화량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추정해 낸 것으로, 향후 성장량 뿐만 아니라 교란지역의 탐지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산림모니터링에 있어 항공 LiDAR의 효용성을 보여주었다.
- ◎ **환경조경학과 Gabriela Renata Jaramillo De Mora**(석사과정)은 지난 10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Urban development in unique isolated territories: Case study in Galapagos, Ecuador’의 주제로 구두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갈라파고스 군도 중의 하나인 산 크리스토폴 섬 (San Cristobal Island)의 무분별한 도시화 과정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 **환경조경학과 Zhen Han**(석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및 기초연구동에서 개최된 에서 “Estimation of canopy volume in the leaf-on and leaf-off seasons using terrestrial LiDAR dataset”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해당 내용은 Voxel-Canopy-Profiling 방법에 기반한 육상 LiDAR 데이터를 사용하여 캐노피 볼륨을 측정하는 것으로, 잎 및 비수기에 수집된 계절 자료를 이용하여 광합성 부분을 성공적으로 계량화 하였다. 특히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캐노피 구조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다중시기 LiDAR 측량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송지용**(박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11월 1일 ~2018년 1월 31일 SK아트센터나비에서 개최하는 [네오토피아: 데이터와 휴머니티 展]에서 자체 개발하여 특허까지 출원한 (20-2017-0003221) ‘미기후측정용 장비’를 활용하여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와 이와 관련한 여러 환경인자들의 공간적 차이를 디지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의 환경데이터 수집기법에 관한 IoT(사물인터넷)의 활용사례를 선보였고, 한국의 4차산업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였다.



- ◎ **환경조경학과 임혁위**(석사과정)는 2017년 9월~11월 서울시에서 열린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제전 [SHARABLE CITY]에서 ‘Air Play’이라는 작품을 SNU.IGSR(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함께 만들었다. 관악구 고시촌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고밀도 도시의 많은 곳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 **환경조경학과 최해인, 박경선, 임범택, 강상현, 송아라**(이하 석사과정)와 **서예례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7년 9월~11월 서울시에서 열린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제전 [SHARABLE CITY]에서 'SeoulReCycle' 작품을 전시하였다. 해당 작품은 재활용이라는 순환적 연계고리를 통해 관악구 고시촌 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 문제를 다루었다. 고시촌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 속에 존재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과 같은 기존 도시공간 생태계에 기반한 비형식적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지원, 활성화를 통해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쓰레기 문제 등 공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공간적 문제를 접근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시스템 제안을 목적으로 했다. 기존에 존재하는 비형식적 재활용 시스템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사회적 공유와 지역경제 향상을 도모하였다. 토큰시스템의 도입과 수거수단 개선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의 수익성 증폭과 함께 노동 강도를 감소시키며 재활용을 통해 축적되는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스테이션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채세롬, 이상아, 이규정, 임혁위, 김서린, 임종호, 유창현, 박상아**(이하 석사과정)는 지난 2017년 9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2017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기억, 아이들의 정원'을 조성했다. '기억, 아이들의 정원'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든 볼런티어가 함께 조성하는 정원으로 총 10개소가 설치되었다. 이 중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은 꿈꾸는 정원(이규정), 별을 품은 꽃(이상아), 빛과 바람으로 오렴(김서린, 임종호, 유창현, 박상아), 별이 노니는 그네(채세롬), 데이트(임혁위) 이다. 조성된 작품들은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세월호의 아픔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꿈꾸는 정원**(이규정): 해가 지면 26개의 빛나는 화분이 정원을 밝혀주고 이 정원에서 평소에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다. 시민들이 편하게 다가와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로 자연스럽게 쉽게 정원을 조성하였다.
- **별을 품은 꽃**(이상아): 아이들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27개의 기둥은 어머니의 품을 의미하는 꽃 안에서 있다. 흔들리는 꽃은 기둥에 닿아 서로를 오가는 따뜻한 손길이 된다.
- **빛과 바람으로 오렴**(김서린, 박상아, 유창현, 임종호): 빛과 바람이 되어 찾아올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을 정원에서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담았다.
- **별이 노니는 그네**(채재롬): '별이 노니는 그네'는 가족과 친구를 찾아온 별들이 잠시 머물며 그네를 타고 노니를 장소가 되길 바라며 만든 정원이다.
- **데이트**(임혁위): 이 정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 곁에 다가와 함께 장난치며 즐겁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다.



꿈꾸는 정원



별을 품은 꽃



빛과 바람으로 오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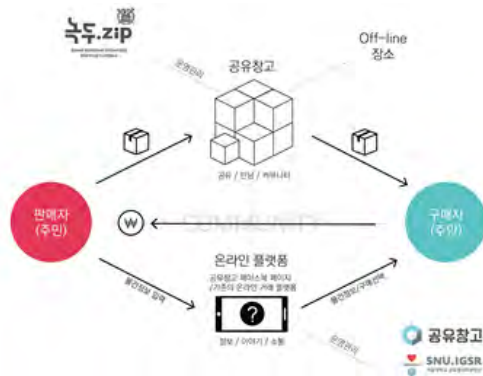


별이 노니는 그네



데이트

◎ **환경조경학과 박경선, 이지우, 임범택, 강상현**(이하 석사과정), **이영은**(디자인학부)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지원을 받아, 고시촌 주민들 간 중고물품 공유 또는 거래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고시촌 공유창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인 ‘녹두zip’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2018년 1월에 공간이 조성 될 계획이다. 공유창고는 물건의 공유와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목표를 갖고 있다. 공유창고는 지역주민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간을 추구한다. 지난 9월 14일 공유창고 첫 주민워크숍을 열면서 주민들과 공유창고 운영 및 조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과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9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2017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강현미(석사과정) 외 4인은 2017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 38동에서 개최된 2017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에서 “2017 캄보디아 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및 의의 - 적정기술 보급과 교육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기간의 적정기술 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자기 효능감 관점에서 그 의의를 도출하였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수, 최고운정, 이지원(이하 석사과정)은 2017년 11월 3일 개최된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몽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업의 적합성, 평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환경관리 전공 오진경(석사과정) 외 2인은, 2017년 11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Community-based adaptation as a tool to address food security in Tanzania”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탄자니아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동체 기반 기후변화 적응이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빅데이터 공모전(경기도청, 2017)

대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과 강태석(이하 박사수료)은 2017년 경기도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판매시설물 내 환승시간 연장단말기를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공모전(국토교통부, 2017)

장려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2017년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공모전에서 “환승시간 연장을 통한 대중교통이용률 개선”을 제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교통사고제로화 아이디어 공모전(한국교통연구원, 2017)

장려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2017년 교통사고 제로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LED 램프를 활용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방안 연구”를 제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수도권 교통정책 제안공모(수도권교통본부, 2017)

창의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2017년 수도권 교통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수도권 내 대중교통 환승시간 연장을 통한 이용률 개선”을 제안하여 창의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논문공모(한국철도시설공단, 2017)

장려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논문 공모전에서 “관광통행 시 철도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제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이동수단 도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 2017)

입선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과 이승봉(이하 박사수료)은 2017년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이동수단 도입 공모전에서 “수상버스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및 통행속도 개선”을 제안하여 입선상을 수상하였다.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협동과정 조경학 박해경(박사과정)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최한 제 3회 ‘국가지질공원 논문 공모전’에서 “국가지질공원 관리를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는 드론으로부터 사진자료를 취득하여 SfM-MVS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solid model을 생성하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output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질공원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환경공간정보 우수논문 공모전

장려상

협동과정 조경학 박해경(박사과정)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2017년 환경공간정보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UAV와 3D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한 SfM-MVS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수목 정량화기법 연구"라는 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내 수목의 3차원 측량을 위한 공간정보 생성을 위한 빠르고 경제적인 디바이스와 방법론으로써 UAV와 SfM-MVS 알고리즘, Solid modeling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론의 증명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 정확도에 대한 효율성 등을 분석결과를 통해 설명하였다.

제1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데이터를 활용한 논문공모전

입선

협동과정 조경학 윤예화(박사수료)와 **환경조경학과 유창현**(석사과정) 외 1인(타교)은 제1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데이터를 활용한 논문공모전에서 "영구임대주택 거주 노인의 활동성향 및 사회적 교류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입선하였다. 해당 논문은 65세 이상인 가구원과 미만인 가구원 그룹 간 건강수준, 근로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교류현황 및 주택환경 인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층은 복지혜택 의존성이 높아 경제적 자립성과 근로의욕이 낮고, 대중교통 및 단지 내 걷기활동이 중요하며, 이웃이 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관계만족도와 다양성이 낮아 향후 이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Culture, Arts, and Literature

최우수논문상

협동과정 조경학 원자연(박사수료)은 지난 4월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명말청초(17세기) 소주 정원의 문화정치"의 주제로 박

사논문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박사연구원이 되었다. 지난 8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학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Culture, Arts, and Literature에서 논문 "Landscape Identity and the Bridge Landscapes in the Water Towns of Jiangnan from 16th to early 19th Century China"를 발표하였으며, 학회 측으로부터 최우수 논문상(Outstanding Paper Award)를 받았다. 이 논문은 중국 강남지역에 위치한 수향(水鄉) 마을의 경관 정체성으로서의 교량 경관에 내포된 지역 정치적 지배의 함의를 밝혀낸다.

2017 제3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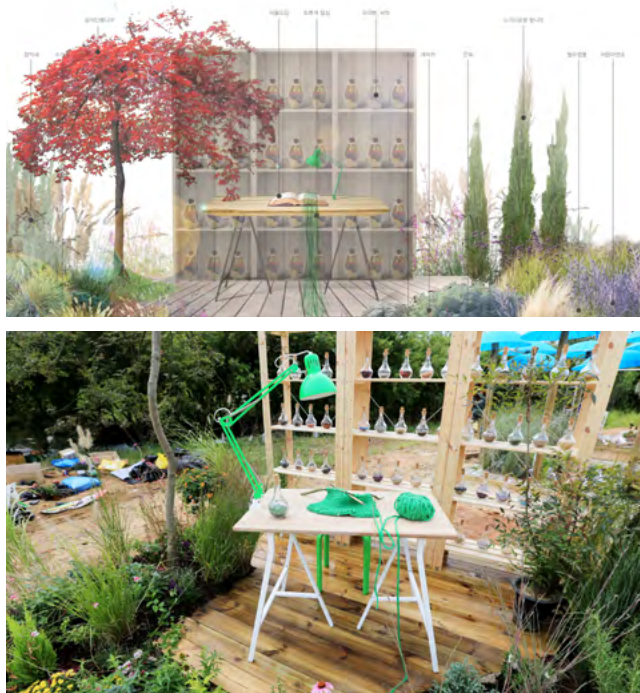
우수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김용훈, 장혁권, 나준수(이하 석사과정)는 서울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공모전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캠퍼스타운 모델]에서 'The old town'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작품은 서울대학교의 대학가인 대학동과 삼성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오랜 장기공실이 진행된 공간과 공공공간 등을 활용하였다. 오랫동안 낙후된 대학가를 서울대학교와 상호관계를 맺어 주민협력, 창업지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그린 공간창출을 통해 보다 나은 캠퍼스타운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이트에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적 맥락에서 Urban acupuncture 기법을 차용하였고 시스템적으로 주민이 자치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가 가능한 협력체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간과 시스템, 주민과 캠퍼스의 조화와 협력으로 새롭고 지속 가능한 재생 캠퍼스타운이 이루어졌다.



2017 제4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장혁권, 나준수, 유창현(이하 석사과정)는 [2017 순천한평정원페스티벌]에서 '너와 나의 중첩'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의 도시생태 현황도(비오뜰지도)의 제작의도를 살피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작된 노력임을 알 수 있다. 비오뜰가든 또한 규모 해석의 차이일 뿐 동일한 의도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비오뜰 유형분류에 따르면 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은 작은 화분 하나도 비오뜰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놓인 식물로 인해 토양의 미생물 혹은 꽃과 나비를 불러들이는 비오뜰 군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의 비오뜰이다. 작품은 비오뜰을 도시개발적 관점으로 분류되기 전의 통합적 생물의 서식공간으로 개념화하고 인식화하여 그 경계를 다시 중첩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즉 비오뜰 '등급'이 아닌 비오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그동안 GIS, 도판, CAD등의 가상의 벡터라인 속에 등장하던 그 경계와 차등적 중요성은 잠시 잊고 나의 방과 나의 주 무대인 책상, 책상, 그리고 그를 통해 습득되는 모든 조경의 지식들이 현실의 자연과 어떻게 중첩된 유기적인 생물서식공간을 형성하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2017 서울정원박람회 동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장혁권, 나준수, 김용훈(이하 석사과정)은 2017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종보존학자의 실험실정원'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하였다. 아이들이 동화책을 통해 동화로 현실을 배워가듯 가상으로 꾸며진 종 보존학자의 야외실험실 정원은 관람자로 하여금 자원과 정원, 종과 보존, 식물상을 넘어 우리의 삶과 자연, 생명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가 얽혀 펼쳐진 하나의 실험과 같음을 표현하였다. '종 보존학자'라는 가공적 인물을 발상하여, 이 인물이 여의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식물 종들을 보존하기 위한 실험적인 정원에서 종의 채집, 실험을 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구현하였다. 서울, 그 중 여의도를 스쳐가고, 사라지고, 아직 존재하고 도래할 식물들을 채집하여 현대인들이 환호하는 동시대적인 양식의 정원 위 놓인 책상위에서 종 보존학자의 종 자체, 장소의 식물상 전체의 시대적 융합을 위한 노력은 마치 그가 현장에서 종의 채집과 실험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2.10 석박사과정 교환학생 활동

서울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매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교 재학생 중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은 누구나 최소 한 학기에서 최대 두 학기까지 해외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 2017학년도 2학기에는 1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스웨덴으로 파견되었다.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우수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7년 2학기에 파견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환경계획학과 조신 아스카(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석사4학기)학생의 교환학생 경험담을 소개한다.

Joshin Asuka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석사4학기



저는 2017년도 가을학기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의 일본학생 Joshin Asuka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는 지리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석사과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에 온지 현재 4개월이 지났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는 교환학생을 포함한 많은 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리학과 석사과정에는 50%가 외국인 학생이고 나머지가 스웨덴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F(Education First)가 실시한 영어 능력지수에 관한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2위에 위치하며(한국 30위, 일본37위), 교수, 학생 모두 원어민처럼 영어가 능통하고 수업의 질도 아주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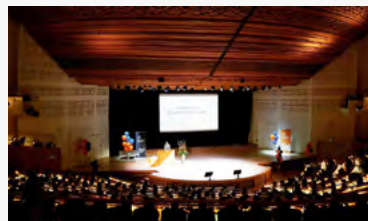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로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으며 생활은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식당에서 4000원 정도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식사가격이 70크로나(약10,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점심을 스스로 준비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학기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한 학기가 2쿼터로 구성되어 한 달 동안 한 개의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업에만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수업을 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3~4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하여 폭넓은 분야를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에는 강의뿐 아니라, 소수로 구성되는 세미나나 답사 등 다양한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 교수와 여러 학생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과제는 수업에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평가하거나 이론을 사용하여 논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은 걸리지만 실용적인 것이 많습니다. 또 기말고사 답안지나 보고서를 제출한 후, 교수님들께서 평가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 및 보고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는 스웨덴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유럽의 사례나 이론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에 대하여 많은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으로 일본과 스웨덴에서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다음 세대의 주택자산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학 전 일본의 데이터 분석은 거의 끝났으며 현재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님께도 지도를 받으면서 스웨덴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 복지국가 체계가 다른 두 나라의 비교를 통하여 주택자산 형성이 사회 불균형의 재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려 합니다.

스웨덴은 현지학생의 수업료가 무료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습이나 생활면에서 공부와 연구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스웨덴 유학을 위해서는 TOEFL, IELTS가 필요해서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북유럽에 유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스웨덴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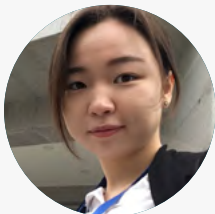


2.10 석박사과정 학생 인턴십 활동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국제기구, 도시·건축·조경설계사무소,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턴십 활동에 참여 중이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7년 2학기에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두 학생이 인턴십 사례를 소개한다.

UN-Habitat 인턴십 활동 소감

협동과정 도시설계 오라나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설계협동과정 4학기 오라나 라고 합니다. 저는 1학기 여름 방학 동안 몽골에 있는 UN-Habitat에서 인턴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석사학위 논문을 올린바토르 저소득층 거주지 “게르 지역”에 관련해서 쓰고 있는데 올린바토르에 있는 UN-Habitat는 이에 관련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UN 공식 인턴 채용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몽골 UN-Habitat 행정 업무는 Fukuoka 에 있는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진행하고 있어 모든 채용 절차는 그 쪽에서 진행됩니다. UN 홈페이지에 4월 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5월 달에 Written Assessment를 보내서 6월 달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7월 달에 Fukuoka에서 몽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명의 책임자와 Skype 인터뷰를 하고 7월 말부터 인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UN 공식 인턴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저는 2개월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대부분 업무 지시를 Team leader 와 Country manager 2명에게서 받았으며 게르 지역 홍수 회복력 강화(Flood resilience)에 관한 프로포절 작업, 아시아개발은행의 게르 지역 Sub-center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현장 조사 및 프로포절 초안 작성을 했으며 GIS mapping 작업을 통해 조사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시간보다 게르 지역에서 조사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논문 관련해서 대상지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오래 동안 일을 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인턴을 하는 동안에 몽골 UN에서 SDG 홍보 행사를 2주 동안 진행 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그분 부탁으로 행사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SDG 목표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UN House 담장에서 SDG Wall 그래피티, 게르 지역 SDG Bus Tour, 공연 등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겨우 2달 동안만 인턴을 했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무급으로 근무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고 관심 있는 일에 대해 용감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배워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UNESCAP DRR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ICT 및 재난경감 부서) 인턴십 활동 소감

환경계획학과 류주현 (석사과정)



안녕하세요. 환경관리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류주현입니다. 저는 지난 해 2월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6 개도국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의 ICT 및 재난경감 부서(DRR)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UNESCAP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 분야의 개발 및 협력을 위한 문제 개발 조사 실시 및 후원, 국가간 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DRR 부서는 ICT, 재난경감, Space Application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난 경감을 위해 인공위성과 GIS를 통한 재난 감시 업무와 ICT를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구축 및 기타 정책적 협력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매 2년에 한 번 씩 모든 섹션이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재난 보고서(Aisa-Pacific Disaster Report)를 발간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 발간 준비 기간에 인턴을 하며 보고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보통 인턴은 회의 준비, PPT 작성 등 작은 서포트 업무들을 담당해 업무에 관해 깊게 배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서 전체가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는 시기에 지원해 인턴을 갖고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면서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인턴십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데이터 재원이 어디 있는지, 데이터를 통계에 활용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지도를 그릴 때 국제분쟁지역의 경계를 매우 조심하여 그려야 한다는 지적은 세계 분쟁지역을 보는 저의 눈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직접 작성한 재난 사례 소개와 그래프가 실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는 주의해야 하는 언행과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며 배려란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란 출신의 동료는 그간 중동지역 국가에 갖고 있던 저의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제기구 인턴십은 다양한 목적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대부분의 인턴은 인턴십에 만족도가 높습니다만 처음 예상했던 일과 달라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적과 꿈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는 눈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국제적인 업무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도전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잊지 못할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3.1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

1) 풍경으로서 DMZ와 접경지역, 성찰과 상상

2017년 11월 24일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풍경으로서 DMZ와 접경지역, 성찰과 상상”이라는 주제로 2017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평화통일을 대비하면서 DMZ와 접경지역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보는 의도로 기획하였다. 풍경의 관점에서 조망해

본 DMZ와 접경지역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의 고유한 풍경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을 향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DMZ와 접경지역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은 지리적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게 하는가? 이외에도 공간계획 및 경관보존, 예술프로젝트와 기록화작업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심포지엄은 전상인 환경대학원 교수와 정근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전상인 교수는 ‘DMZ, 철조망의 풍경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DMZ 접경지역 일대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을 풍경의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정근식 원장은 철원지역의 폐허에 얽힌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쟁기억을 상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를 염원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부는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DMZ와 접

경지역의 공간환경과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박은진 국립생태원 융합연구실장,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교수, 서예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김영봉 원장은 ‘평화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공간계획관리방향’, 박은진 박사는 ‘DMZ 및 접경지역 미래관리방안’, 이승욱 교수는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대북전단살포를 사례로’, 마지막으로 서예례 교수는 ‘남북한 경계공간의 실재와 상상, 그리고 제3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부에



서는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남영호 신한대학교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고, 박성태 정립건축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진행을 맡았다.

2부는 광주비엔날레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정 대표가 세션을 이끌었으며 DMZ 및 접경지역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아트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 초청됐었던 최재은 작가의 DMZ 공중정원 프로젝트 'Dreaming of Earth'가 소개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조민석 건축가의 'DMZ 생명과 지식의 저장소 디자인'도 함께 다뤄졌다.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신이도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진이 함께 DMZ의 14개 전망대를 답사한 후 진행한 전망대 풍경 도큐멘테이션 작업도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DMZ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트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다. 이경성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 대표는 DMZ 일대를 도보 여행한 경험과 감상을 연극으로 제작하여 최근 두산아트센터에서 상연된 연극 '워

킹 홀리데이(Walking Holiday)'에 대해 발표하였고, 사운드아티스트 권병준 작가는 지난 12월 3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되었던 '교동도 소리풍경, 평화를 위한 연주'를 소개하였다. 특히 권병준 작가의 발표 마지막에는 사전에 미리 설치된 8채널의 스피커를 통해 교동도에서 녹음한 소리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2부 토론으로는 독립기획자 임혜진과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2) 플랫폼의 진격, 도시 혁신을 요구하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사단법인 C.O.D.E 공동주최 심포지엄

플랫폼의 진격, 도시 혁신을 요구하다

일시 : 2017. 11. 29 (수) 오후 2시~7시
장소 : 파림홀 (을지로5길 19 FERRUM TOWER)
사전신청 : bit.ly/2017platform
주최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사단법인 C.O.D.E
협력기관 : 아트센터 나비

[사회자: 최영욱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단법인 C.O.D.E 이사]

13:30 - 13:55 | 참가자 등록
14:00 - 14:10 | 인사말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장) / 축사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제 1부: 플랫폼의 도시

14:30 - 14:35 | 환영말 그리고 송환말 도시 (김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원장)
14:35 - 15:00 | 플랫폼 기업과 부동산 그 영향 (김상현, (주)나비(에이티))
15:00 - 15:25 | O2O 혁신 전략 (김영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5:25 - 15:50 | 토론 (의장: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OCCE이 이사장)
15:50 - 16:10 | 휴식

제 2부: 플랫폼이 야기할 이슈

16:10 - 16:25 | 커넥트 박람회 플랫폼 시대와 지역성 (윤종수, 사단법인 C.O.D.E 이사장)
16:35 - 17:00 | 여전히 드나들 곳을 찾아라 (윤수영, 트레바리 대표)
17:00 - 17:25 | 라이프스타일 기반 플랫폼 도시의 등장 (이상욱, Urban Hybrid 대표)
17:25 - 17:50 | 토론 (의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ARES 소장)
18:00 - 19:00 | Networking Party

문의 : ysk3775@penc.ac.kr

11월 29일, 을지로 페럼홀에서 환경대학원과 사단법인 C.O.D.E가 공동 주최한 "플랫폼의 진격, 도시 혁신을 요구하다"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김경민 환경대학원 부원장을 포함한 6명의 강연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으로의 진출 현상과 그에 따른 도시 변화의 대응책, 그리고 실제 플랫폼 사업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1부에서는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원장의 '플랫폼, 그리고 충동의 도시', 김상현 前 NAVER 대표의 '플랫폼의 확산과 그 영향', 김영규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의 'O2O 혁신 전략' 강연이 있었다. 이어지는 1부 토론에서는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의 사회로 1부 강연자 및 참여자들과 '플랫폼과 도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윤종수 사단법인 C.O.D.E 이사장의 '커먼즈로 바라본 플랫폼 시대의 지역성', 윤수영 트레바리 대표의 '여전히 드나들 곳은 필요하다', 이상욱 Urban Hybrid 대표의 '라이프스타일 기반 플랫폼 도시의 등장' 강연이 있었다. 2부 토론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2부 강연자 및 참여자들과 '플랫폼이 야기할 이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플랫폼으로 변화해가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이번 심포지엄은 총 5시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정부와 연구소, 언론사, 그리고 도시 및 건축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한



김경민 환경대학원 부원장



김상헌 NAVER 前대표이사 강연



1부 토론 플랫폼과 도시



2부 토론 플랫폼이 이야기할 이슈

2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전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도시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환경대학원의 모

습 그리고 여러 유관 분야와의 협력 및 소통을 이어나가는 환경대학원의 모습으로 알려지길 기대한다.

3.2 환경계획연구소 관리 연구

NO	과제명	연구 책임자	지원기관
1	고양시 첨단혁신클러스터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 고양시 도시환경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김태형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	사회적 수용성 높은 숲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적 접근 방안 모색	윤순진	미래창조과학부
3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복선전철 예비 타당성조사의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4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및 대학가 활성화 방안연구	최막중	서울대학교
5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윤순진	서울대학교
6	쇠퇴주거지 유희공간의 일시적 공유지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경합과 의미변화	성종상	교육부
7	중랑·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김경민	서울특별시
8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원마을 석수골 다시 꽃 피우기	성종상	지방자치단체
9	광릉숲 정원벨트 조성 연구	성종상	산림청
10	VEP를 이용한 곳자알 경관자원조사와 공간계획 고도화	손용훈	국립산림과학원
11	객관적비만도 및 주관적 척도로서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에 미치는 건조환경의 영향 분석을 위한 교통학적 접근	김태형	교육부
12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형태 특성에 관한 연구	김희철	교육부
13	하천 내 유기합합물의 생지화학적 특성에 따른 하천-대기 간 이산화탄소의 이동량 변화	오능환	교육부
14	실측기반 초고정밀 3차원 수관구조의 재현과 동태모델링의 피지빌리티에 대한 연구	송영근	교육부
15	노인 및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증진환경 조성방안 연구용역	성종상	서울주택도시공사
16	택시 운전자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택시 교통사고 감소 대책	이영인	한국교통연구원
17	차량 통행경로자료 분석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조사분석-2차년도	이영인	한국도로공사
18	백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요 및 편익부문 검토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19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이영인	한국개발연구원
20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1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 실태조사 및 향후 활용방안	안현진	서울특별시
22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분석	이영인	한국개발연구원
23	서울 민간창작공간 운영 실태조사 연구용역	김경민	지방자치단체
24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교통수요 및 편익 추정	이영인	한국개발연구원
25	2030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막중	서초구
26	(서울 분청)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추정	김성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017 용산공원 홍보를 위한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경진	국토교통부
28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9	대중교통 안전운행 및 정시성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버스정류장별 정시운행체계 도입방안연구	이영인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교수 동정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 I 전상인 교수는 국내 학술지에 “DMZ 국가촌락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박정희 새로 보기의 4장을 집필하였다.
 - 전상인, 이종겸(2017). “DMZ 국가촌락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4호.
 - 전상인(2017). “대한민국 주택의 얼굴을 바꾸다 - 박정희 시대와 ‘아파트 공화국’의 재인식”. 박정희 새로 보기. 기파랑.
- I 전상인 교수는 아래와 같은 학회발표와 다수의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다.
 - 2017.10.11.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 특강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적인가?”
 - 2017.10.21. 세계화연구센터 <라이프스타일X도시> 북토크 “공간으로 세상읽기: 집·터·길의 인문사회학”
 - 2017.11.1. 대구경북연구원 <박정희·김대중 리더십 학술토론회> 발제 “‘계획가’ 박정희의 근대화 리더십”
 - 2017.11.24.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 <풍경으로서의 DMZ와 접경지역, 성찰과 상상> 발제 “DMZ, 철조망의 풍경사회학”
 - 2017.11.15. 한림대 도서관 북콘서트 <공간으로 세상읽기>
 - 2017.11.20. 토문건축사사무소 <토문주거연구회> 특강 “아파트의 미래”
- I 전상인 교수는 아래와 같은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
 - 2017.10.1.-2020.9.3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제심위원회 위원
 - 2017.7.1.- 조선일보 ‘조선칼럼’ 고정필진

환경계획학과 최막중 교수

- I 최막중 교수는 9월 7-8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에서 주최한 국제주택포럼(International Housing Forum)에 초청을 받아 ‘Building Inclusive Cities and Resilient Communities; Lessons from Seoul, Korea’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 I 최막중 교수는 9월 15-23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지난 5년간 수행한 농촌개발사업의 현지 실사평가를 수행하였다.
- I 최막중 교수는 10월 18-22일 케냐 나이로비의 UN-Habitat 본부를 방문하여 ‘개발도상국의 신도시 개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I 최막중 교수는 12월 4일 중국 호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건축 전공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최근 도시계획 이슈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构建包容性城市与弹性社区
Building Inclusive Cities and Resilient Communities: Lessons from Seoul, Korea

主讲人: Mack Joong Choi (崔莫童)
首尔国立大学(韩)环境大学院教授、博士生导师
哈佛大学(美)城市规划学博士

研究领域: 城市与区域规划、城市开发、土地利用、房地产市场

历任: 首尔国立大学环境大学院院长
韩国城市规划学会会长

现任: 联合国人居署智库专家
亚洲城市规划学会(APSA)理事
韩国国家规划委员会智库专家
首尔城市规划委员会智库专家
新加坡城市发展机构智库专家(UR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IJUS)国际学术刊高级主编

时间 | TIME: 2017年12月4日 | 19:30
地点 | PLACE: 湖南科技大学
立志楼 B05

主办单位: 湖南科技大学环境与艺术设计学院 / 承办单位: 城乡规划系、建筑规划设计研究所 /

환경계획학과 장수은 교수

- I 2017년 9월 1일부로 환경계획학과장에 취임하였다.
- I 박사과정생 정동재와 함께 SCI급 저널에 고속철도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택실험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유형성, 쾌적성, 편의성, 고객 서비스, 안전 및 보안성 등을 계량화하였다. 이 논문은 2017년 11월 30일 현재, 해당 저널에서 가장 많이 읽힌(most read articles) 논문 3위에 올라있다.

- Chang, J.S., Jung, D., 2017. Valuations on quality of service for intercity travels using high-speed rail, Transportation Lett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ation Research 9(4), 228-242.

▮ 박사과정생 남궁욱, 정동재와 함께 각각 1편의 KCI급 논문을 발표하였다. 남궁욱과의 연구는 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하여 한국철도통계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였고, 정동재와의 연구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 남궁욱, 장수은, 2017. 한국철도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2007년과 2017년의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교통연구 24(3), 75-86.

- 정동재, 장수은, 2017.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소음비용 추정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35(4), 292-306.

환경계획학과 김경민 교수

▮ 김경민 교수는 2017년 가을학기부터 환경대학원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하반기 김교수는 국내학술논문 1편과 해외학회 논문 1건을 발표하였다.

- 20세기 초반 해화동일대의 중상층화 과정을 밝힌 "일제강점기 한양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중상류층 지역화 과정" 논문 (유슬기와 공저) 을 [서울과역사 97호, 2017.10] 에 발표하였다.

- 또한 지난 7월, 2017 AsRES(아시아부동산학회)에서 "What Drives Cap Rates in Asian Office Markets?"를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아시아 주요도시들의 오피스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으로 Prof. Tsolacos(영국 Cass 경영대학원), 김건(Univ of Illinois, Chicago 박사과정)와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 학회 활동으로는 1)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 사회혁신민관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함께 혁신 비전 및 실행전략 제시 등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 11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정책 글로벌 분과)으로 선임되었다.

▮ 기타 중요활동으로는 중앙일보 데이터저널리즘팀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분석 기사("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연재, 1) 강남집값의 비밀과 3) 비싼 달동네 해방촌의 명암)를 기획하였다. 11월 29일 개최된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 '플랫폼의 진격, 도시 혁신을 요구하다'를 기획하였고, '플랫폼 그리고 총동의 도시'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

▮ 2017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he 7th Congress of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EAAERE) 이사회에서 임기 2년의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 2017년 8월 환경부 친환경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소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선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미국, 중국, 태국 등 전문가를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현재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고정필진으로 참여 중이다.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

▮ 김태형 교수는 2017년 하반기에 SCI급 논문 2편을 저술하였다. 10월에 출간된 하나는 토지이용이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주종과 주말로 나누어 연구한 것이며 8월에 실린 다른 하나는 청계천공원의 공간을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스트레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

게 다른지 탐색한 것이다.

- Gim, Tae-Hyoung Tommy. 2017. Full random coefficients multilevel model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trip time on weekdays and weekends. Sustainability 9(10): 1824.

- Kim, Moohan, Tae-Hyoung Tommy Gim (교신저자), and Jong-Sang Sung. 2017. Applying the concept of perceived restoration to the case of Cheonggyecheon Stream Park in Seoul, Korea. Sustainability 9(8): 1368.

■ 이에 더해 KCI급 영문 특별호 논문 1편, KCI급 국문 논문 1편을 저술하였다.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에 실은 영문 단독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이에 따른 도시환경과 정주민 행동의 변화를 예측하였으며, 교통연구 논문(교신)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 김태형 교수는 국내외 컨퍼런스에서 단독으로 6차례, 공동으로 2차례 발표를 하였다.

- 한국지역학회, 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각각 토지이용과 주말통행 간의 관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통적 및 현대적 해석에 대해 단독 발표하였고

- 경기연구원이 주최하는 GRI 국제컨퍼런스에 초빙을 받아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소개하였다.

- 타이베이에서 열린 Asian Seminar in Regional Science에서는 서울의 토지이용과 내부통행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 유럽도시계획대학협의회가 리스본에서 주최한 AESOP Annual Congress를 통해서 건조환경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였다.

- 그리고 지난 8월 환경대학원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충성도(재방문 및 구전 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동발표로서 같은 컨퍼런스에서 석사생 Ryan Dash와 함께 파리협약에 따른 국가별 NDC 차이 및 그 원인을 소개하였고 환경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석사생 김주리가 제1저자로 발표한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김태형 교수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지원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5명의 명사를 초빙하여 한 달에 두 차례, 문화와 예술이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집담회를 이끌었다.

■ 11월에는 한국연구재단(교육부)의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채택되어 현재 토지이용과 고령인구 교통사고 간의 관계를 연구 중이며, 12월 중순부터는 서울산책(서울시 교통운영과)과 종로 BRT 개통에 따른 이용자 행태변화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LH공사가 발주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김태형 교수는 지난 9월에 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에 임명(환경대학원 자료실장, 환경논총 편집위원장 겸임)되었고 Marquis의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가 결정되었다.

환경계획학과 지거첸(Steven Jige Quan) 교수

■ 지거첸(Steven Jige Quan) 교수의 3편의 논문이 승인을 받아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 Quan, S. J. Energy efficient neighborhood design under residential zoning regulations in Shanghai. Energy Procedia (Accepted).

- Quan, S. J., Igou, T. K., Chang, S., Dutt, F., Castro-Lacouture, D., Chen, Y. & Yang, P. P. Decentralized algal energy system design at various urban densities and scales. Energy Procedia (Accepted).

- Peng, Z., Jia, L., Li, L., Quan, S. J. & Yang, P. P. How the roofing morphology and housing form affect energy performance of Shanghai's workers' village in urban regeneration. Energy Procedia (Accepted).

■ 지거첸(Steven Jige Quan) 교수는 강연에 초대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내 3건 국외 1의 강연을 하였다.

- Urban form and building energy performance. Young Scholar Society,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년 7월 14일.

- Smart Design for Sustainable Cities. 2017 대전 글로벌 혁신 포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세계 테크노 폴리스 협회 (WTA), 대전, 2017년 9월 13일.

- Smart Design for Sustainable Neighborhoods. 한양 대학교, 2017년 11월 21일.
- Smart Design: Design Optimization for Low-carbon Neighborhood Development. Digital Commons Lujiazui Symposium. Sino-US Eco Urban Design Lab, 통지 대학교, 상하이, 2017년 8월 12일
- 지거첸(Steven Jige Quan) 교수는 국내 2건 국외 2건의 논문발표를 하였다.
 - Design Optimization for Low Carbon Neighborhood Development. 공간 계획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위한 2017년 국제 회의 (SPSD), 서울, 2017년 8월
 - Smart Design: A new sustainable design approach. 한국지역학회 학술대회, 서울, 2017년 12월
 - Energy efficient neighborhood design under residential zoning regulations in Shanghai. World Engineers Summit 2017 - Applied Energy Symposium and Forum: Low Carbon and Urban Energy(WES-CUE 2017) Joint Conference, 싱가포르, 2017년 7월.
 - Environmental Design Decision Support with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MDO). 제 57차 ACSP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연례학회, 덴버, 2017년 10월
- 지거첸(Steven Jige Quan) 교수는 서울대학교 중국인 학생회의 요청으로 교내에서 다음과 같은 강의를 하였다.
 - Introduction to Research Design. 서울대학교 중국인 학생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205호. 2017년 11월 25일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 성종상 교수는 2017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ICOMOS 총회 및 문화경관 분과위 분과위원회의 Expert voting member / Election committee member로 연례 미팅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Election committee member로서 성교수는 임기가 완료되거나 새로 입회하려는 각국의 임원과 회원들에 대한 선거를 주관하였다. 또 주요 안건 중 하나인 working group 회의에서 성교수는 이 전부터 준비해 온 한국의 문화경관 관련 문헌록을 소개하여 World Cultural Landscape Bibliography에 수록되도록 하고, 추후 정리될 World Tea Landscap에 한국의 차 문화경관을 소개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성종상 교수와 Wybe KUITERT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를린 달렘(Dahlem)의 Kunsthistorisches Institut der Freien Universität가 주최한 'Transplanted Places-Garden Design and Shifting Cultural Geographies 1650-1800, Transregional Perspectives' 워크숍에 초대 연설자로 참석하였다. 'Garden as a secluded paradise -17 C Joseon scholar Kosan Yoondo's garden'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 조경진 교수는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열린 International Urban Parks Conference에서 주제 발표하였다. Next Generation Infrastructure: Creating Parks from Bridge and Overpass 세션에서는 '서울로 7017'을, International Forum, River Revolution 세션에서는 '한강'으로 발표하였다.
- 2017년 8월 18일-19일 환경대학원에서 2017 SPSP(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회의가 열렸다. Happy City, Happy Life라는 주제아래 15개국, 180명 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조경진 교수는 조직위원장으로 교내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이 회의를 준비하였다.
- 조경진 교수는 2017년 10월 15일-1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World Council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2022년 광주에 IFLA World Congress를 유치하였다. 이어 열린 World Design Summit의 Design for Transformation회의에서 Current Issues of Management Innovation in New Public Space, Seoul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 조경진 교수의 도시조경계획연구실에서는 2017년 4월부터 교동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아트선재센터 한옥에서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교동도 소리풍경, 평화를 연주'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작업은 사운드 아티스트 권병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여러 형식으로 후속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 조경진 교수는 2017년 11월 24일 환경계획연구소가 개최한 심포지엄 '풍경으로서 DMZ와 접경지역, 성찰과 상상'에서 공동연구자와 함께 '전망대 풍경 도큐멘테이션'을 발표하였다.
- 2017년 12월 11일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열린 '평화관광의 가능성' 국제회의에서 '평화관광을 위한 자원의 재구성: 철원 사례를 중심으로'로 주제 발표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이석정 교수

- 이석정교수는 2017년 9월 23일 고양시정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인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통합 도시설계 공원녹지 및 하천 자원 활용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써 고양시정연구원 및 환경조경학과와 연구생들과 함께 도쿄도청 건설국 하천부(The Bureau of Constructi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Shinjuku, Tokyo)를 방문하였다. 고양실리콘밸리 통합도시설계는 도로 중심의 신도시 계획 개념에서 하천과 녹지 및 보행을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가치로써 받아들이는 시대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연구이다. 이석정 교수는 이번 기관방문에서 도쿄의 하천관리와 관련한 발표를 듣고 연구와 관련한 제방구조, 하천 순환 및 수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환경조경학과 비베 콰이테르트(Wybe Kuitert) 교수

- 비베 콰이테르트(Wybe Kuitert) 교수는 지난 6월 24일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Kunsthistorisches Institut der Freien Universität에서 열린 국제 워크숍인 Transplanted Places: Garden Design and Shifting Cultural Geographies 1650-1800, Transregional Perspectives 에 참가하여 "Raising children: The garden, and Japan perceptions of Constantijn Huygens" 의 주제로 구두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네델란드의 문화가 콘스탄테인 하위헌스가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었던 경험이 그의 자식교육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의 교육관련 문헌에서 상당부분 영향 받았다는 사실을 논하고 있다.
- 9월 28일에는 네델란드 유티레히트에서 열린 Dag van de Openbare Ruimte (Public Open Space Fair)에서 비베 교수가 디자인한 Von Siebold Memorial Garden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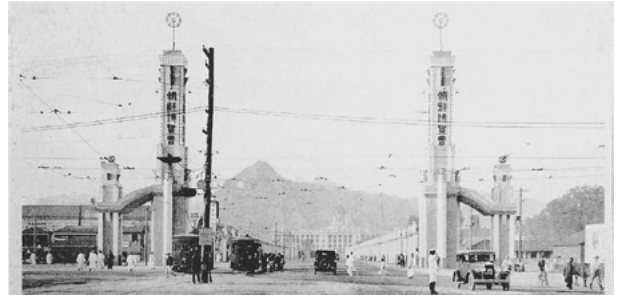


10월 8일에는 일본 교토대학에 소재한 The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Garden Art and Historical Heritage에서 열린 국제 학회 The Cosmopolitan Japanese Garden에서 'The cosmopolitan Japanese garden, design and ideas' 라는 주제로 키노트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세계 제 1차대전 이전 미국의 록 커펠러 집안과 프랑스의 알베르 칸 등의 국제적 거부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일본 정원의 취향과 문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비베 콰이테르트(Wybe Kuitert) 교수는 SSCI 저널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에 "Spruces, pines, and the picturesque in seventeenth-century Netherlands"을 온라인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유럽 정원의 픽처레스크 취향이 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이전에 이미 17세기 네델란드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논하고 있다(<https://doi.org/10.1080/14601176.2017.1404223>).

비베 콰이테르트(Wybe Kuitert)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17-20일 일본 교토대학에 소재한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에서 열린 국제학회 Expos and Human History에서 발표한 논문 "From Gyeongbok Royal Palace to the Chosun Exposition: A transformation in space"이 프로시딩으로 정식 출판되었다(pp. 43-46, ISSN 0915-2822).



12월 9일 네델란드의 라이덴 대학 소재 Dutch Association of Japanese Studies 에서 'Japanese lacquer ware and the English garden' 의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강연주제는 그동안 진행한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원미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

김세훈 교수는 '17. 6월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중 하나인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되었다. 사무국장, 지자체 공무원, 활성화계획팀 및 활동가들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지 면적은 약 26만 m²로 향후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이 이루어진다. 이번 학기 김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도시설계의 과제와 방법』 수업에서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의 지원으로 대상지에 대해 <빈집발굴과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

5.1 2016학년도 후기 졸업식 및 장학금 수여

2016학년도 후기 졸업식이 2017년 8월 29일 월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29명(환경계획학과 21명, 환경조경학과 8명), 박사 13명(환경계획학과 7명, 협동과정 조경학 6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서 석사학위 우수논문으로서 환경계획학과 서형주, 박현철, 정서영, 권아영, 차지연, 환경조경학과 백초롱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지난 학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기탁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등이 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

진 교수를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7년 2학기에는 **환경조경학과 박한솔 학생**(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연제승, 전서희, 신유승, 환경조경학과 최희준 학생**(이하 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교통학 전공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7년도 2학기에는 **이종우 학생**(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 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학 전공 재학생 중 논문 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내의 학술활동을 한 학생 2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7년도 2학기에는 **박종문**(박사과정), **김진태 학생**(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5.2 2017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7년 8월 24일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총 59명(환경계획학과 46명, 환경조경학과 6명, 협동과정 조경학 7명)과 김경민 부원장, 양 학과 학과장 및 여러 교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양 학과 학과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고, 학교시설 소개, 교수진 및 교과목 소개, 장학금 안내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후에는 학과 및 전공별

로 연구조교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잠시 휴식 후, 신입생들은 동기들과의 팀작업 미션을 수행하였다. 환경대학원 CI 만들기 미션을 받은 신입생들은 팀별로 자신들의 소개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각오 등을 CI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가진 후 2부에서는 저녁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5.3 학생회 활동

1) 신임 학생회장 인사말



기획팀
이예린
& 최유정

디자인팀
노원규

홍무 및 기획
한수정

부회장
최광재!



**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 여러분!
환경대학원 학생회입니다!**

2017년 2학기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환경대학원 조경학 전공 석사과정 박영수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와 지지에 정말 감사드리며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동아리기획
김상현

커피포린스
양시웅

저희 학생회는 환경대학원 학우 여러분과 더욱더 소통하고 함께 즐기며 언제나 열려있는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학업 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환경대학원 모두가 어울리며 교수님 분들과 학생 사이에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전히 부족한 저희이기에 진심 어린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 활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마주쳐도
서먹서먹하게 눈인사만 하는거
어색하고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하고싶었던 동아리활동들을 통해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해요~ :)



동아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
공백여백 :)

2) 나눔 행사

환경대학원 학생회에서는 올해 양봉부와 같이 옥상 양봉활동을 통하여 채밀한 꿀을 판매하여 장학금 및 학생회비를 마련하였다. 판매 수익으로 마련된 학생회비의 일부를 2017년 12월 11일(월) 환경대학원 학우들과 나누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환경대학원 교내 3층 로비에서 100명의 학우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회는 학기말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자 본 나눔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행사 중 학생회 소개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동아리활동에 대한 설문문을 함께 진행하여 학우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6.1 SGS 제34기 출범

지난 9월 21일(목), 서울대 교수회관 2층 양식홀에서 제34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출범식이 있었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국토, 도시, 환경 분야가 맞이하는 도전과 과제를 직시하면서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 하에 2018년 4월까지 정기강좌와 국내외 시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종상 원장은 “공간·환경 분야의 국내 최초인 본 최고위과정은 서울대 내 전체 공개강좌 평가에서 지난 6년간 연달아 최우수 평가를 받아 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임을 인증 받았으며, 앞으로도 최상의 교육과 최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새로 주임교수를 맡은 전상인 교수는 “국가대표 공간지식 재생학

교’로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 혁신을 통해 명품 강좌로서의 지위를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33기에 이어 객원 주임교수로 이재준 前수원시 부시장이 참여한다.

34기는 전후반기 총 18주 동안 31개 세션의 교육과 국내 및 해외 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동문 및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특강을 5회 마련하여 우리 분야의 이슈를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하여 비중 있는 저명인사를 초빙할 계획이다. 전반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e환경논총 통해 간략한 강의노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1	개강특강. 국립공원 50주년의 의미와 과제	전상인 주임교수
2	공간가치 창출의 인문사회학	최막중 환경대학원 교수
3	라이프스타일 도시: 한국 도시의 창조적 미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4	오픈특강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회경제정책 방향	김진표 국회의원, 前국정기획자문위원장
5	통일과 한반도 교통체계의 통합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6	대륙연계 육해로 교통체계의 전망과 과제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	오픈특강 2. 시를 이해하는 기쁨: 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호승 시인
8	디벨로퍼와 쇼핑몰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
9	타임스퀘어: 리테일 상업용 부동산	김담 경방타임스퀘어 대표
10	도시주거의 새로운 전개	최명철 단우건축 대표
11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2	기후문제 해결의 딜레마	한삼의 조선일보 수석논설위원
13	지속가능 발전, 과연 가능한가?	홍중호 환경대학원 교수
14	펠로우 플랫폼(Fellow Platform)1 - 우리나라는 어떤 부동산정책이 필요한가?	
15	펠로우 플랫폼(Fellow Platform)2 - 환경과 개발의 공존은 가능한가?	
16	통일한반도의 국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 구상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1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뉴딜	이재준 객원주임교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8	오픈특강 3.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	김은성 KBS 아나운서, 스피치커뮤니케이션선학 박사

후반부에는 조경, 도시설계,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13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34기에 참여하는 36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승관(태림조경 이사)	서기복(하나건설이앤씨 대표)	윤성호(엘지유플러스 데이터센터설계팀 책임)
권순원(이천시청 환경보호과장)	서미경(해안건축 조경팀 수석)	윤양호(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권태희(교통안전공단 부장)	송영담(신한산업 대표)	이상석(부산이앤이 대표)
김남규(에스엠이주식회사 대표)	안상욱(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지환(동양건설산업 이사)
김병익(수원시청 지속가능과장)	양용택(서울시청 도시계획과장)	이철구((사)녹색환경실천본부 총재)
김연수(현대종합설계 상무)	엄조영(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장)	이태석(안산시청 도시주택국장)
김유중(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장)	엄형원(㈜PMK 대표)	장명희(한옥문화원 원장)
김철희(㈜팍스 상무)	예승용(라운디자인그룹 대표)	전상구(㈜동산 대표)
김철호(메타스퀘어 대표)	오상협(대왕빌딩 이사)	진병복(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장)
김한정(국회의원)	오유리(Verse Development 대표)	최대립(장원조경 전무)
박선화(현대토건주식회사 본부장)	유석동(의정부지방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승환(정림건축 본부장)
박종철(국토정보교육원 교수)	유성식(여수복합신도시개발 사장)	한상원(에이앤유디자인그룹 이사)



6.2 SGS 제34기 국내시찰

제34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9월 22일에서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 및 평창올림픽 준비현장을 다녀왔다. 첫째 날에는 설악동으로 가서 최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설악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권금성 등을 둘러보고,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설악문화센터를 방문했다. ‘국립공원 50주년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상인 주

임교수의 개강 특강도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강릉의 올림픽 홍보 체험관, 아이스아레나, 스피드스케이팅장, 하키경기장과 평창의 슬라이딩 센터 등 평창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살펴보았다. 이번 국내시찰은 성종상 원장, 전상인 주임교수, 이영성 교수를 비롯한 19명의 34기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6.3 SGS 제34기 오픈특강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4기에서는 모두 5회의 오픈특강을 마련하였다. 오픈특강은 기존에 수료한 동문 펠로우와 환경대학원 석박사과정 동문 및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강좌로, 사전에 공지된다. 또한 오픈특강은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사무국(snusgs@snu.ac.kr, 02-880-8525)에 예약하면 저녁식사도 제공된다.

34기 전반부에는 3회의 오픈특강이 열렸으며, 34기 외에 매회 20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10월 12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원(前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회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10월 26일에는 정호승 시인이 ‘시를 이해하는 기쁨: 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12월 7일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라는 주제로 김은성 KBS아나운서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시민환경대학

7.1 시민환경대학 대표 인사말

안녕하세요.

시민환경대학 제10기 수료생 신말애입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특히 시민환경대학의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황사에 대한 심각성도 마스크를 쓰면 괜찮겠지 했는데 미세먼지는 마스크도 소용이 없고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사실,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들의 몸에 나쁜지에 대한 내용, 산업혁명과 지속가능성, 환경적 위기, 사회정치적 위기, 성장의 역설, 빗물을 저장하는 방법과 텃밭 가꾸기에 빗물 사용법 등 많은 것을 배웠고, 생활에 옮겨 실천하고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우리 모두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환경대학원 시민 강좌를 통해 저희들이 살아 온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지구 환경을 물려줘야 할지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가지고 계신 삶의 지혜를 많이 전파하고 공유해주셔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열심히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환경대학 제10기 수료생 신말애

시민정원사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론 위주의 과정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정원에 적합성이 높은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7년 8월부터 69명의 수강생과 함께 시작된 하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사진은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이유미 교수, 송영근 교수, 외부강사 김용택 소장(Knl 환경디자인스튜디오), 조혜령 작가(가든디자이너,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 중)로 구성되었고,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정원학개론, 동양정원사	서양조경사, 현대도시의 삶과 정원문화	도시생태와 정원	정원설계1	정원설계2	정원설계2, 답사(교내정원)	현장답사 - 천리포수목원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	김용택 소장	이유미 교수	조혜령 작가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주였던 설계 수업을 2주로 늘려 진행하였으며,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으로 답사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번 2017년 하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을 수강한 69명의 수강생들은 12월 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동문소식

9

동창회

9.1 신임 동창회장 인사말



환경대학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환경대학원 동창회장 전병성입니다.

저는 1983년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에 입학하여 수학하였고, 그동안 환경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기상청장 등의 공직 생활을 거쳐, 현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우선 저를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으로 이끌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그 무게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려 합니다.

우리 환경대학원 동문들은 그간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조경 등 다방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계,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계에서도 매우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이 편하게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동창회로 이끌겠습니다. 각 계,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동문들의 소통과 단합, 그리고 환경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그 뜻을 겸허하고 성실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환경대학원 동창회장 전병성

전병성 동창회장 주요 약력 現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前 기상청장 / 前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 前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9.2 2017 홈커밍데이

지난 2016년 10월 14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는 동문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끝나는 저녁 9시까지 전병성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동문 120여 명, 명예교수 및 현직 교수, 재학생까지 총 15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환경대학원 동창회가 주최하였으며, 교통

학 전공 동창회와 올해로 졸업한지 30, 20, 10년이 되는 환경대학원 87, 97, 07학번,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3기, 19기, 20기 동문들이 주관하였다. 2017년 홈커밍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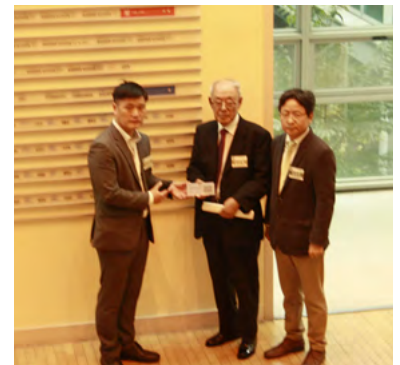


전공별 행사	
16:00-17:00	도시 및 지역계획_저명인사 특강
14:30-17:00	교통학_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한다
	환경관리_서울환경포럼 2017 추계세미나
	조경 및 도시설계_토크콘서트
GSES 나눔 바자회	
17:00-18:30	GSES 나눔 바자회
기부자와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	
17:15-17:45	발전기금 Wall 업데이트 행사
홈커밍데이 공식행사	
18:00-18:30	저녁식사
18:30-19:50	개회사, 환영사, 전공별 동문활동 소개, 공로패 수여, 명예교수님 스피치
19:50-20:50	재학생 공연, 바자회 물품 경매, 기념촬영

본격적인 홈커밍데이 행사에 앞서 각 전공별 행사를 실시했다.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은 저명인사 특강, 교통학 전공은 토크콘서트(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한다), 환경관리학 전공은 서울환경포럼 2017 추계세미나,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은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각 전공별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9.3. 전공별 동창회 행사>에 소개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층 P&C Hall에서 기부자와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발전기금 Wall을 업데이트하는 행사로

김경민 환경대학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성종상 환경대학원장의 인사말씀 및 환경대학원 발전방안에 이어, 김경민 부원장의 발전기금 Wall 및 기부자 우대계획 소개로 이어졌다. 발전기금 Wall에 새롭게 명패를 올린 기부자는 김진학 동문(SGS 29기, ㈜영남건설 대표), SGS 제33기를 비롯하여, 2016 홈커밍데이 주관기수, 김안제(명예교수)·한경원(도시 00, 지역위 정책연구관) 등 16개의 기부자 명패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다.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공식행사는 금년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 임영태 동문(교통 89,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병성 동창회장의 개회사, 성종상 환경대학원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를 이어 전공별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별 활동 소개는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대표 변창흠 동문(도시 및 지역계획 88, SH공사 사장), 교통학 전공 대표 김연명 동문(교통학 85,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환경관리 전공 대표 우정현

동문(환경관리 86, 건국대 교수),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 대표 이재준 동문(조경 및 도시설계 88, 아주대 초빙교수), SGS 부대표 이경민 동문(SGS 19기, 미성 前대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2016년 홈커밍데이 주관 전공으로서 큰 공헌을 한 환경관리 전공 前대표 조경두 동문의 공로패 수상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김안제 명예교수를 모시고 과거 환경대학원의 모습과 함께 좋은 덕담들을 전해주셨다.



다음으로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환경관리 전공 이예은의 성악 공연과 교통학 전공 이진주와 동호회 동료 5명이 함께

한 댄스스포츠 공연이 이루어져 홈커밍데이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특히 이번 홈커밍데이에서는 바자회가 개최되었다. 여러 교수님 및 동문들이 기증한 여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임강원 명예교수의 골프채와 원제무 동문의 그림 등 일부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경매의 형

식을 빌어 판매하여 기증자와 낙찰자의 공동명의로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하였다. 앞선 바자회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301만 원의 수익금을 환경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사 종료 후에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작은 기념품을 나누며 동문 홈커밍데이의 의미를 더하였다.



9.3 전공별 동창회 행사

1)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동창회

저명인사 특강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7년 10월 14일,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에서 저명인사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쟁점과 과제”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동문과 재학생까지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특강의 사회는 김대중 동문(도시 93,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담당하였고, 특강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대표 변창흠 부회장(도시 88, SH공사 사장)의 인사가 있었다. 강연자인 강현수 동문은 현재 충남연구원 원장으로, 중부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수위원회 정부분과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등 다수의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강연은 지방균형발전 아젠다와 관련하여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의 이슈를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동문 및 재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 토론이 있는 배움의 장이 마련되었다.



2) 교통학 전공 동창회

토크콘서트 : 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한다

지난 10월 1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한다”라는 주제로 교통학 전공 동문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을 졸업한 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기타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동문들과 김성수 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는 교수, 그리고 석박사 재학생 등 총 42명이 참석하였다.

토크콘서트는 국토연구원 임영태 동문부회장의 사회에 따라 각 기관에서 오신 동문들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동문선배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의 상황과 그때 느꼈던 점들, 그리고 지나고 나니 아쉬웠던 점들에 대한 내용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등 뜻깊은 동문들 간의 대화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본격적인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점들을 미리 배워두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를 해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3) 환경관리 전공 동창회

서울환경포럼 추계 학술세미나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환경대학원 103호 대형강의실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우정현, 환경 89, 건국대학교 교수) 2017년 추계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추계포럼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친기후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앞에서 지자체와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환경: 친환경 에너지 전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환경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기회를 맞게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 서울환경포럼 우정현 회장을 포함한 총 40여 명의 환경관리 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김좌관 교수(환경 86, 부산카톨릭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유승직 교수(숙명여대 교수)가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국가 에너지 수급 변화”를 주제로 기조발제 하였으며, 이후 총 3개의 발표와 오픈 토론 형식의 전체 토의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로는 먼저 김성욱 박사(환경 박사 05,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가 “기초지자체 단위의 에너지 자립 현황”이라는 주제로 안산시의 에너지 비전 2030의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에너지 자립 노력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의미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다음으로 김주진 변호사(환경 02, (사)기후솔루션 대표)는 “에너지 정책에 따른 화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사업성 변화”라는 주제로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투자기회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나경혜 차장(셀코리아 LNG 사업개발부)은 “Sustainability at Shell”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과 기업 입장에서 미래 에너지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지난해 추계토론회에서부터 도입되어 좋은 반응을 보였던 오픈 토론 방식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픈 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참석자가 자유롭게 질문 및 답변을 하면서 토론이 이어졌으며, 김동영 교수(환경 97,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사회로 기조발제자와 주제발표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와 환경대학원 동문들의 높은 관심으로 포럼은 뜨거운 열기 속에 예정된 시간 3시간을 넘겨 마무리 되었다.



4) 조경 및 도시설계 전공 동창회

토크콘서트 :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 / 조경·도시의 미래 전망, 위기인가? 기회인가?



10월 14일 토요일 홈커밍데이 전공별행사로 환경조경학과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존 세미나의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하고 동문 및 재학생 참석자 모두가 흥미를 갖고 함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주제로 1부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사회: 이재준(환경조경학과 동창회장), 패널: 박은영(중부대), 김도훈(안산시), 이석정(조경학과 교수), 민범기(테라도시건축사사무소), 유나경(PMA엔지니어링), 김영현(건축도시공간연구소)), 2부 조경·도시의 미래 전망 위기인가? 기회인가?(사회: 안승홍(환경조경학과 동창회 총무부회장), 패널: 송영근(조경학과 교수),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 채진해(서울시), 유예슬(재학생), 진린(DA건축사사무소), 김영환(재학생))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시민의식, 민간의 책임, 공공성과 인정성의 인식오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학생과 실무자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조경·도시의 미래전망에 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패널 외에도 많은 동문들과 재학생이 참여하여 선후배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4) SGS 동창회

SGS 동창회 하계 해외답사

SGS 동창회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여름 휴가기간에 세계 도시 환경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포도주와 켈틱/바스크 문화에 취해 따라가는 산티아고 순례길 - 프랑스 서부해안~스페인 북부해

안”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30여 명의 SGS 동문 펠로우와 가족이 참여하였다. 주요 답사 지역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 켈틱(브리튼) 문화 | 프랑스 브레타뉴(캥페르, 반, 낭트) / 스페인 갈라시아(산티아고 데 콤포스탈레)
- ◎ 바스크 문화 | 프랑스(바욘) / 스페인(산세바스탄, 빌바오)
- ◎ 선사유적 | 프랑스(카르나크) / 스페인(알타미라 동굴)
- ◎ 로마/중세 역사 | 프랑스(생트, 라로셀, 해상요새 포르보야르) / 스페인(루고, 라코루냐)
- ◎ 포도주 투어 | 프랑스 보르도(생테밀리옹, 메독, 코냑) / 스페인 리오하(보데가스 메르케스 데 리스칼 - 프랭크 게리 호텔)
- ◎ 축제 | 스페인 산 페르민 소몰이 축제(팜플로나)
- ◎ 종교성지 | 스페인 국토회복운동(오비에도, 코바동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탈레 순례길
- ◎ 도시재생 | 프랑스(낭트 기계동물 테마파크, 보르도 La Base Submarine, Project Davinci) /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등)

동문 동정

10.1 석·박사과정 동문 동정

■ **이강건 동문**(도시 74, 선진엔지니어링 부회장은)은 지난 11월 2일 국토부 주관 국토발전전시관 개관식에서 초창기 해외건설 관련 역사자료를 기증한 바,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또한 해외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이강건 동문의 인터뷰 동영상이 2층 해외진출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 국토발전전시관은 국토발전 60년사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공간으로, 역사자료 전시 및 홍보관이다. 국내외 학생 및 공무원, 해외 연수 공무원들의 교육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개관하였다. 본 전시관은 광화문 정동에 과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 **김태용 동문**(도시 81, (주)에코파이 대표이사)은 지난 7월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사무실을 새로 개설하여 이전하였다. 그동안 겸직하였던 (사)환경과문명 연구소장직을 6월 말로 사임하고, (주)에코파이에 전담하기로 하였다.

■ **전병성 동문**(도시 8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은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11.13-18),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 OECD와 공동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여 호평을 받았다.

■ **고문헌 동문**(도시 94, 송실대 교수)은 2017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박윤진 동문**(조경 95, 오피스 박김 대표)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설계대학원 설계전담교수(Design Critic)로 임명되어 2018년 봄 학기부터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을 개설하고 진행한다.

■ **이태동 동문**(도시 01,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2017년 토론으로 배우는 환경-에너지 정치와 마을학개론: 대학과 지역을 잇는 시민정치교육을 출간하였다.



10.2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 동정

- ▣ **SGS 20기 자치회**(회장 지승준, 사무국장 김대문)는 11월 24일(금), 25일(토) 영종도 을왕리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 ▣ **SGS 24기 자치회**(회장 유병영, 사무국장 전영성)는 12월 13일(수), 사당동 '바른식 시골보쌈' 별관룸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유병영 회장(진명기업 대표)을 비롯한 17명의 펠로우가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회장과 전사무국장은 “새해에 진행될 4회의 정기모임 일정과 3월 모임은 박창화 펠로의 초청으로 과천시 방문과 청계산 등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몇몇 펠로우의 새로운 소식도 나누었다. 박창화 펠로우는 7월에 과천시 부시장에 부임, 양보승 펠로우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 옮김, 복승규 펠로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김, 전영성 펠로우는 골든시티 도성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업, 이광석 펠로우는 신명건설기술공사 부사장 취임하였다.

- ▣ **SGS 29기 자치회**(회장 김종석, 사무국장 양희범)는 10월 12일(목) 교대역 인근의 '호정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 ▣ **조용호**(SGS 29기)펠로우는 DMTC 대표에서 한국심해기술협회 해양탐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 **SGS 30기 자치회**(회장 강완수, 사무국장 전태효)는 지난 9월 9일(토) 부산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강완수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으며, 골프팀과 문화체험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골프팀은 베이스아이드CC에서 오찬 및 라운딩을 즐겼고, 문화체험팀은 부산역에서 가까운 차이나타운 답사 및 오찬을 한 후 인제대학교 김학수기념관에서 진행되는 “분투하는 도시들 -1960년대

일본의 도시프로젝트”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다음으로 ‘송도해상케이블카’를 방문하여 건설과정에 대한 설명 청취 및 탑승의 기회를 가졌다. 두 팀은 저녁에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밀레니엄힙집에 모여 친교시간을 갖고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모임은 부산지역의 강완수(대아종합조경(주) 회장), 이진수(라움펠리스 대표) 두 펠로우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SGS 30기 자치회**(회장 강완수, 사무국장 전태효)는 12월 7일(목) 강남구 수서동 대흥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20명 중 강완수 회장 등 13명이 참석하여 결산보고, 회장 및 감사 선임 건 등을 처리하였다. 차기 회장은 최원만 부회장(신화건설링 대표), 감사는 김상욱 감사(코레일 처장) 유임으로 선임 되었고, 사무총장은 신현범(닛스트로닉스 대표) 회원이 내정되었다. 이하 집행부 구성은 차기 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지난 4년간 출중한 카리스마와 희생으로 30기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주신 강완수 회장께 회원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차기 회장의 협찬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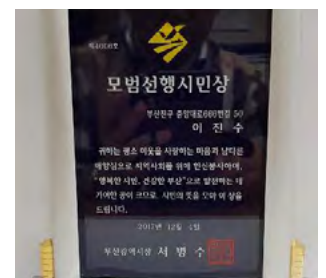


증정하였다. 아울러 손혁재 前수원시정연구위원장님이 준비한 케익으로 이 날 생일을 맞이한 김완중 회원에게 모두 축하를 하였다.

■ **손혁재**(SGS 30기, 유라시아평화철도 이사장) 펠로우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라시아평화철도는 지난 12월 12일(화), KTX광명역 사회의실에서 ‘유라시아평화철도 포럼 및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유라시아대륙(평화)철도로 러시아와 연계해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포럼으로 김윤식 前 국회의원 강의 및 발기인 선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손혁재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유라시아 원정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조찬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 **이진수**(SGS 30기, 라움펠리스 대표)펠로우는 지난 9월 1일, 민주평등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임명되었으며, 12월 4일에는 지역사회 봉사 와 헌신으로 부산시장으로부터 ‘모범선행시민상’을 수상하였다.



■ **SGS 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국장 이경훈)는 10월 13일(금), 14일(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주달빛기행'이란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다. 지진호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펠로우가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SGS 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국장 이경훈)는 9월 20일(수) 은화삼CC와 11월 22일(수) 중부CC에서 하반기에 2회의 골프모임을 개최하였다.



■ **SGS 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국장 이경훈)는 12월 14일(목), 광화문 '금강산'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지진호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펠로우가 참여하여 송년의 아쉬움을 나누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지회장은 "내년에도 지난 '전주달빛기행'과 같은 알찬 프로그램으로 펠로우 간 화합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사무국장은 "조성원 펠로우가 내년 2월 3일(토), 부산에서 결혼식을 한다. 함께 1박 2일로 모임도 하고 축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으며, 이정화 펠로우가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식도 전했다.



■ **임진우**(SGS 32기, 정림건축 대표)펠로우가 대표로 있는 정림건축의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23일 '빛과 함께 걷다(Lightwalk)'는 설계안으로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국제현상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었다.



■ **SGS 33기 자치회**(회장 김재준)는 9월 16일(토) 두 번째 국내시찰로 수원을 다녀왔다. 김상연 펠로우가 운영하는 김중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집결하여, 이재준 공동주임교수님의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관한 특별강연을 들었다. 수원시의 협조로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받고, 수원화성과 행궁동, 생태교통페스티벌, 수원전통문화관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답사는 수원지역의 김상연(김중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엄형원(PMK 대표) 두 펠로우의 기획으로 진행되었으며, 33기 펠로우 15명과 조정진 주임교수가 참여하였다.



■ **SGS 33기 자치회**(회장 김재준)는 11월 24일 (토) 부산시 수영구 해촌횃집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 이영권 동아석재산업 대표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SGS 33기 자치회**(회장 김재준)는 11월 25일 (토) 세 번째 문화탐방으로 부산을 다녀왔다. 아침 일찍 마린씨티 풍원장에서 식사를 하고, F1963과 키스와의어센터를 둘러본 다음, 송도 해수욕장에서 케이블카를 탔다. 달마갤러리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바구캠프, 디나눔센터, 이바구공작소, 168계단 등을 답사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부산지역의 김지현(부산시의회 정책연구팀장), 박혜란(대흥리사이클링 전무), 한영숙(사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세 펠로우의 기획으로 진행되었으며, 33기 펠로우 및 가족 20여 명과 전상인 주임교수가 참가하였다.

■ **박상권**(SGS 33기, 교통안전공단 부장)펠로우는 지난 11월 7일 타이완 타이페이 과학기술 컨벤션센터에서 타이완 환경보호사가 주최하고 공업기술연구원이 주관한 “2017 에코드라이브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에코드라이브(경제운전) 보급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신지형**(SGS 33기)펠로우는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한국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제로 공동주택 실증단지 EZ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SGS 34기 펠로우**들은 10월 12일(목) 수업을 마치고, 낙성대 소래포구에서 개강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성종상 원장, 전상인 주임교수, 이재준 객원주임교수와 34기 펠로우 20여 명이 참석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SGS 34기 펠로우**들은 11월 17일(금) 저녁, 윤양호(SGS 34기,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펠로우의 초청으로 갤러리 비선재에서 현대 미술과 와인을 통한 소통과 교감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성종상 원장, 전상인 주임교수, 박찬정 SGS동창회 부회장과 34기 펠로우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10기로 수료한 장낙



순 회장(갤러리 비선재)과 권영태 대표(도시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의 환대 속에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갤러리 비선재에서는 12월 1일부터 윤양호 작가와 권두현 작가의 전시 프리뷰가 진행되고 있다(관람 문의&예약; 02-793-5445,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54-14).

■ **SGS 34기 펠로우**들은 11월 2일(목) 자치회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남규 대표(에스엠이주식회사)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사무총장에 서미경 수석(해안건축 조경팀)과 사무국장에 김철희((주)팩스 상무)가 선임되어 세부 운영진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김남규 대표



서미경 수석



김철희 상무

■ **SGS 34기 자치회**(회장 김남규, 사무총장 서미경)는 12월 7일(목) 수업을 마치고, 비스트로모링 낙성대점에서 전반기 종강모임을 하였다. 이 자리는 전상인 주임교수와 김남규 34기 회장을 비롯한 펠로우 26명이 참석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2016.12~2017.11)

“동문 여러분들의 발전기금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규모	기부자 및 기부금액
1,000만 원 이상	SGS글로벌리더십기금(SGS 동문화장 송두영) 1,200만 원 SGS 제33기(회장 김재준) 1,500만 원
500 ~ 1,000만원	(주)오이코스(대표이사 배장영(환경87)) 500만 원
100 ~ 500만원	김진학(SGS29기, ㈜영남건설 대표) 300만 원 전병성(도시8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0만 원 원제무(교통74,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101만 원 안계동(조경79, 동심원 조경설계연구소 소장) 100만 원 임강원(계획68,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김우진(도시83, 국제신탁 부사장) 100만 원 황영도(조경93, (주)용문GL조경개발 대표) 100만 원 2017 흙커밍데이 준비위원회(대표 김연명(교통동문화장)) 100만 원 SM우방건설산업(부사장 김종일(도시84)) 100만 원 방정일(기계항공공학부96) 100만 원 전상인(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최막중(환경대학원 교수) 240만 원 이영성(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김경민(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김성수(환경대학원 교수) 150만 원, 이영인(환경대학원 교수) 150만 원 장수은(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김태형(환경대학원 교수) 100만 원 이동수(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오능환(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홍종호(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윤순진(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조경진(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성종상(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손용훈(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이유미(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김세훈(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100만 원 미만	김광중(환경대학원 교수), 전제열(도시03,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주정훈(도시03,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팀장), 강신규(환경 93, 강원대학교 교수) 박년배(환경00, 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광욱(환경00, 삼성SDS) 김영삼(환경96, 삼성 SDS), 육근형(환경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현국(환경01, 국립환경과학원), 박지혜(환경0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님께서 납부해주시는 기부금은 동문간의 교류와 화합, 모교의 발전, 후배 장학 사업에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윤병석 조교 02-880-5669 / gsesnews@snu.ac.kr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5기 모집 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활동으로 발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국기대포
공간지식
재생활학교

2018년 9월에 출범하는
35기 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지금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시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 전화 880-8525 E-mail snusgs@snu.ac.k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2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년 하반기 뉴스레터

